

10 2026 VOL. 364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991-2026

 PT. BOSUNG INDONESIA

**35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HONGSAM
BALL**

BEST SERVED ❄️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Signature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
**COME
BACK
STRONG**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전화: 021-521-2515



춤사위로 피어난 화폭 위의 모정.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에서 선보인 정방울 단장의 살풀이춤. 배경이 된 어머니 박정자 화백의 그림과 딸의 춤사위가 하나의 호흡으로 만나, 타향을 살아가는 동포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05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어디서 왔나”

07 월간 뉴스 브리핑

09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10 [디카시 풍경 32] 화산 겨울 | 김동환

11 2026 K-Work Bridge Job Fair

13 [문예총]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은 “아리아리 아라리오, 제9회 재인도네시아 문예총 종합예술제

19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차세대의 꿈을 밝혀준 소중한 정성,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20 [조연숙의 인도네시아 천 개의 이야기] 10월 국군의 날, 한국 국군과 인도네시아군(TNI)

22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한류 팬덤, 추석맞아 하나로 뭉치다

contents

2026. 10. 통권 364호

24 대시 시대, 한 교사의 ‘바이브 코딩’
이야기: 인도네시아 교실과 4년간
짙은 국제교류 프로젝트가 시뮬레이션
게임이 되기까지 | 이창근

26 [하영지 소장의 인도네시아어 교실 3]
인도네시아어연구소장 하영지의 책세상

28 [박물관 이야기 켄 45] 배신으로 살고
신으로 죽은 하리하라 석상

32 [JIKS]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학습실(반딧불이관)’ 개관과
2학기 ‘순공120’ 프로젝트 대장정 돌입

34 [학생기자] 1학기 125시간 기록,
JIKS 자기주도학습 ‘순공 120’ 완주기
| 한동훈

35 [학생기자]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이정휴 회장님 인터뷰 | 박승현

37 이정휴 회장 5개국 네트워크 강화,
민주평통 실천형 통일외교 박차

38 [학생기자] 대입 준비하며 도전한
일본어 자격증 JLPT N2 | 최윤희

40 [행복에세이] 울면서 웃으면서 | 김준규

41 [적도문학상 수상작]
고슴도치 갑옷을 벗다 | 김명숙

44 자카르타 국회 앞 ‘계단 없는 육교’,
시위 차단 의혹과 사실관계

45 수라바야 “평화기원의 탑”을 찾아서
| 김주명

48 [서상영의 한방칼럼 42]
약초꾼 이야기 6화 - 황금(1)

50 [손상현의 자카르타의 아침]
자카르타에서 떠나는 반등 골프 1
박 2일: Parahyangan & Jatiningor
라운드 후기

55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 STIK-PTIK
51기, 태권도로 ‘강한 경찰’ 만든다

61 [김재훈의 ‘세무 TALK’]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의 변화:
PMK 55/2026과 ‘Pihak Lain’의
제도화

62 [제슬린의 12가지 한국 이야기 3]
낮에는 콘텐츠 작가, 밤에는 한국 학생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62회]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7)

66 2026 임원회비 납부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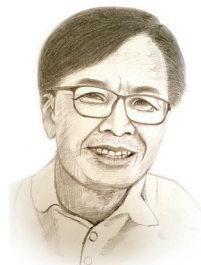
68 생활정보

전화 (021) 521-2515, 0812-1960-308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어디서 왔나”



논설위원 신성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국가가 경제의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모아 국민의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초대형 국부펀드 겸 전략 투자기관 다난타라(Danan-tara)를 통한 국가 자산 운용, 자원 가공 산업 육성, 마을협동조합 확대 및 무상영양급식(MBG) 프로그램 등은 분야가 달라도 정부가 발전을 주도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국정 운영 철학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아버지 수미트로 조요하디쿠수모(1917~2001)의 경제관, 망명 기간 해외에서 보낸 성장기, 수하르토 체제에서의 군 경력을 함께 놓고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붙는 수미트로 박사는 독립한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수출과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창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을 키우고 제조업과 농촌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를 신봉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나 시장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되 국가가 발전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실용주의에 가까웠다. 프라보워는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경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취하는 혼합경제를 적용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의 경제관에서 국가의 역할이 큰 이유를 설명해 주는 직접적인 증언이다.

부자의 삶에는 국가권력과의 충돌도 깊이 새겨져 있다. 수카르노 정부에서 상공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낸 수미트로로는 정권과 대립하다 수카르노 정권기인 1958년 수마트라에서 수립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에 가담했다. 혁명정부라는 반정부 활동은 중앙과 지방의 자원 배분 갈등, 군부 내부의 불만, 수카르노의 권력 집중과 공산당 세력 확대에 대한 반발이 얹혀 있었다. 1958년 수미트로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어린 프라보워도 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프랑스, 홍콩, 런던에서 옮겨 다니며 현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수미트로 가족은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한 뒤인 1967년 귀국했다. 아버지는 수하르토 정부에서 무역장관과 연구 담당 국무장관으로 복귀했다. 프라보워는 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군인의 길을 택했고, 1983년에는 수하르토의 딸 시티 헤디아티(일명 티틱)와 결혼했다. 정권과 충돌해 조국을 떠났던 가문이 새 정권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다만 망명의 상처가 곧 중앙집권에 대한 확신을 낳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분명한 것은 프라보워가 성장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한 가족의 삶을 바꾸는 모습을 경험했고, 이후 강력한 대통령과 군부가 지배하는 체제 안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에게 국가가 산업화를 설계하는 주체였다면, 군인 프라보워에게 국가는 영토와 질서를 지키는 조직이기도 했다. 경제적 자립과 국가안보를 함께 강조하는 그의 언어는 이 두 경험의 만남의 지점으로 입을 수 있다.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를 국내에 남기는 정책은 경제 발전의 수단이면서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정력과 대통령의 실행 권한이 강조된다.

2025년 2월 출범한 다난타라는 이러한 생각을 제도로 보여준다. 국영기업 자산과 배당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이 기구에 대해 프라보워의 친동생 하심은 아버지가 40년 전 제안했던 구상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족의 회고이며 당시 구상과 현재 제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수미트로가 장관으로서 국가 자산의 전문적 운용을 제안했다면, 프라보워는 대통령으로서 그 자산을 자신의 개발 전략에 연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 부자의 차이는 사상뿐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지위에서도 나온다.

국가의 역할은 투자에 머물지 않는다. 프라보워 정부는 전략 자원의 수출 거래에 대한 감독과 수출대금의 국내 예치를 강화하고, 적백마을협동조합(KDMP)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수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 남기고, 농촌의 유통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하면 중앙정부가 자본의 흐름과 지역 경제에 더 깊이 관여하는 방향이 드러난다. 다만 조직의 설립과 자금의 동원이 곧 생산성 향상이나 주민 소득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프라보워 정부의 정책을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자원 가공 산업 육성은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 이어받은 정책이고, 현재의 투자에는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도 필요하다. 프라보워의 국정 운영에는 가족의 사상적 유산과 군 경력, 전임 정부의 정책,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선택이 함께 작용한다. 수미트로의 혼합경제론은 그중 중요한 뿌리이지만, 국가 통제를 확대하는 모든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통치 방식이 마주한 제도적 조건도 수하르트 시대와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이후 민주화 개혁을 거쳤고, 2001년부터 지방분권을 본격 시행했다. 전국적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는 지방의 권한과 주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 지방의 부패나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권한을 중앙에 모으더라도 감시와 책임의 구조가 약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프라보워의 국정 운영 철학은 국가가 발전과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의 평가는 그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혼합경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정부의 추진력과 함께 민간의 창의성, 전문가의 판단,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의 힘이 커진 만큼 국민의 경제적 기회도 넓어졌는지, 대통령의 의지가 제도의 신뢰로 이어졌는지가 그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끝]

경전철 끝빠~망가라이 개통... 편리해진 자카르타 대중교통

자카르타 끝빠가딩(Kelapa Gading)과 망가라이(Manggarai)를 잇는 경전철(LRT)가 지난 16일 공식 개통됐다. 자카르타 북부와 동부를 거쳐 남부 지역의 교통 거점인 망가라이를 연결하는 ‘LRT Jakarta’ 노선이다. 이 노선은 기존 끝빠가딩-벨로드롬(Velodrome) 구간을 망가라이까지 연장한 것으로 이날 개통식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참석했다. 끝빠가딩-망가라이 LRT 개통은 그동안 짧아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LRT Jakarta를 자카르타의 주요 대중교통망과 본격적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 개통한 노선의 총 연장은 약 12.2km, 11개 역으로, 끝빠가딩→망가라이 약 28분이 소요된다. 이 노선의 역은 Kelapa Gading-Boulevard Utara-Boulevard Selatan-Pulomas-Equestrian-Velodrome-Rawamangun-Pramuka-Matraman-Proklamasi-Manggarai 등이다.

기존 1단계는 끝빠가딩-벨로드롬 약 5.8km였고, 이번에 벨로드롬에서 망가라이까지 연장되면서 노선이 두 배 이상 길어졌다.

초기 하루 수송 능력은 약 8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 노선의 장점은 끝빠가딩에서 망가라이까지 환승 없이 약 30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망가라이는 자카르타 광역전철(KRL)의 핵심 환승 거점이어서 자카르타 북부·동부 주민들이 도심과 남부로 이동하기가 훨씬 편리해졌다.

개통 기념으로 9월 16~23일 기간에는 8루피아의 상징적 요금을 받았으며, 자카르타 스마트시티가 발표한 24일 이후 임시 요금은 끝빠가딩-망가라이 5,000루피아이다. 정규 요금은 별도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망가라이에서 두꾸 아파스(Dukuh Atas)까지 약 2.4km를 추가 연장하는 Phase 1C도 추진되고 있다. 두꾸 아파스까지 연결되면 MRT Jakarta·LRT Jabodebek·KRL·공항철도·TransJakarta와의 환승성이 크게 높아진다.

라자암팟서 바다거북 잡아먹은 혐의로 중국인 체포

남부 술라웨시 주도 마카사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명 해양관광지 파푸아 라자암팟군에서 바다거북을 잡아먹은 혐의가 있는 중국 국적의 한 남성을 붙잡았다.

압디 위도도 수바기오 마카사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 14일 CNN인도네시아닷컴에 “마카사르 출입국관리소가 중국인 W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디 소장은 라자암팟 지역 피아이네모 지역에서 해양동물을 포획했다는 의혹 신고와 관련해 현지 지방정부가 보낸 요청 공문에 따라 출입국 직원들이 해당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라자암팟군 지방정부는 W씨가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만 압디 소장은 라자암팟군 정부가 출국 저지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해당 외국인의 출국을 막아 달라는 라자암팟군 지방정부의 공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압디 소장은 라자암팟군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중국인을 조만간 파푸아로 다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프레만’ 거리 폭력배에서 정치·경제의 중개자까지... 형태 바뀌 살아남은 비공식 권력

인도네시아에서 ‘프레만(preman)’은 흔히 거리 폭력배를 뜻하지만 한국의 ‘조직폭력배’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시장이나 터미널에서 돈을 걷는 폭력배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기업의 해결사, 경비 인력, 선거 동원세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합법과 불법, 정치와 범죄, 국가와 민간의 경계를 오가는 존재다.

프레만이라는 말은 네덜란드어 ‘vrijman’, 즉 ‘자유인(free man)’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회적 존재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자바와 반툰 지역의

‘자고(jago)’, ‘자와라(jawara)’, ‘쨌땡(cen-teng)’ 등지의 지역 실력자들은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지주나 권력자를 대신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가기구 밖에 있으면서 권력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현대 프레만의 사회적 선행 형태로 볼 수 있다.

프레만과 정치권력의 결합이 두드러진 시기는 수하르토의 신질서(Orde Baru) 시대였다. 정권은 군과 관료조직뿐 아니라 청년단체와 지역의 비공식 폭력세력을 활용해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대중을 동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빨찌실라청년회(Pemuda Pancasila)다. 특히, 거리의 프레만들이 조직에 흡수돼 시장과 유흥업소, 주차장, 경비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수하르토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동원세력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정권은 프레만을 이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 ‘페트루스(Petrus · Penembakan Misterius, 의문의 총격)’ 당시 범죄자와 프레만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재판 없이 살해됐다. 필요할 때는 포섭하고 동원했지만 통제가 어려워지면 억압하는 이중적인 관계였다.

1998년 수하르토 퇴진 이후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진행됐지만 프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 정치인과 기업인 등 새로운 후견인을 찾아 변화된 환경에 적응했다. 선거에서는 사람을 동원하고,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 · 주차장 · 경비 · 채권추심 · 토지 및 사업장 분쟁 등에 개입했다.

일부 프레만 네트워크가 오르마스(ormas · 대중사회단체)의 형태와 결합한 것도 주목할 변화다. 물론 이슬람단체 NU와 무함마디야를 비롯한 수많은 오르마스를 프레만 조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일부 오르마스가 정치적 동원력과 거리의 물리력을 함께 갖추면서 프레만과의 경계가 흐려지는 사례가 나타난다.

헤르쿨레스(Hercules · 본명: Rosario de Marshall)가 이끄는 그립 자야(GRIB Jaya)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립 자야는 합법적인 오르마스이며 조직 측은 프레만 집단이라는 평가에 반

발한다. 따라서 일부 회원의 불법행위를 조직 전체의 성격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프레만 문제를 이해하려면 ‘프레마니즘(premanisme)’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단순한 조직폭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과 제도 대신 위협과 인맥, 조직력과 물리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상인이 공식 세금 외에 비공식적인 돈을 내고, 기업이 행정 절차보다 지역 실력자에게 의존하며, 정치인이 선거와 집회를 위해 거리의 동원세력을 필요로 한다면 프레마니즘은 개인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된다.

프레만이 제공하는 핵심 상품도 역설적으로 ‘폭력’ 보다는 ‘보호(protection)’에 가깝다. 문제는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이 동시에 위협을 가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프레만을 분석할 때 ‘보호비 갈취(protection racket)’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프레만이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동원력을 원하고, 기업은 사업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며, 일부 주민과 상인은 국가기관보다 지역 실력자의 도움을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프레만 문제는 범죄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전근대의 지역 실력자에서 수하르토 시대의 정치적 행동대원, 민주화 이후의 지역조직과 일부 오르마스에 이르기까지 형태는 달라졌지만, “공식 권력과 비공식 강제력이 서로 필요로 하는 구조”는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프레만 문제의 핵심 질문은 “프레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넘어선다. “왜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경제는 아직도 프레만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이 프레만이라는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초 대 장

제 107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우리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의 선전과 건투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출정식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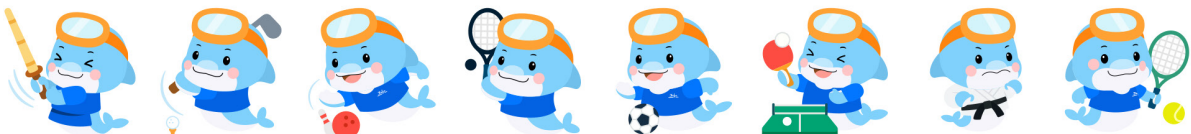
2025년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후 3시 30분
장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층 대강당
선수단 복장	붉은색 단복 착용 (단복이 없는 분은 긴팔 바틱 또는 한복 착용)
참석문의	사무국 / 김중희 사무총장 0815-1902-0341

회장 김태화
단장 양영연 / 기수 김희익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





화산 겨울

김동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

가장 뜨거웠던 것이
가장 차갑게 식어가는 계절
체온이 몇 도쯤 내려앉았을까.
컱, 컱-
끝내 삼키지 못한 신음이
검은 하늘 아래 쌓여가고
그렇게 겨울로 뜨겁게 식어간다, 우리는

K-WORK BRIDGE JOB FAIR

한국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 인재 채용 기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재를 찾고 있는 한국 기업을 모집합니다.

KOSM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TP SCIENCE TECHNO PARK
UNIVERSITAS INDONESIA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글로벌 인재 매칭의 장

K-Work Bridge Job Fair

지금, 인도네시아 우수한 인재와
함께 할 한국 기업을 기다립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성장!

K-Work Bridge 소개

K-Work Bridge는 중진공(KOSME)이 STP Universitas Indonesia 및 Jendela Asa Indonesia(JAI) 재단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인도네시아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한국 소재 중소기업과의 취업 매칭을 지원합니다.

준비된 인재,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



기업 모집 : 9월 21일 ~ 10월 23일

매칭 기간 : 10월 1일 ~ 11월 12일

채용 박람회 : 11월 12일 (KOSME GBC)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기회

- ✓ K-Work Bridge의 우수한 인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 ✓ 기업의 채용 기준에 맞춘 맞춤형 인재 추천
- ✓ 채용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인 인재 채용 지원
- ✓ 다양한 직무 분야의 인재 모집 가능



채용 진행 절차

※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기업 채용 수요 전달

기업 → JAI
원하는 직무와 채용 조건을
JAI에 알려주세요



후보자 매칭 및 검토

JAI가 기업의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선별합니다.



적합 후보자 매칭

JAI → 기업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선별하여 추천합니다.



이력서 검토 후 면접 결정

기업이 후보자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업의 최종 선발

면접 후 기업이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런 인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K-Work Bridge 1기·2기 수료생과 Korea Track 참가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공 및 경력



한국어 능력



직무 적합성



기업 요구 조건

※ JAI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별하여 매칭합니다.



모집 가능한 직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전문직
- ✓ 기술직
- ✓ 생산직
- ✓ QC
- ✓ 그 외 다양한 직무
- ✓ 통번역
- ✓ HR & Legal
- ✓ Accounting & Tax
- ✓ Sales & Marketing



지금, K-Work Bridge Job Fair에
모집기업으로 참여하세요!

기업의 채용 수요를 알려주시면, JAI가 최적의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문의처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62 822-8563-7228 / Cicilia

jendela.org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2026 K-Work Bridge Job Fai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STP Universitas Indonesia,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JAI)가 함께 운영하는 K-Work Bridge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200 여명의 인재들이 한인 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인재들은 QS 대학순위에서 인도네시아 상위권에 꼽히는 UI, UGM, ITB, UNAIR, IPB, ITS, UNPAD, UNDIP, UB 등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2026 K-Work Bridge Job Fair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만나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인재들의 희망 취업 분야

인사 및 노무	회계 및 세무	영업 및 마케팅	생산 관리
품질 관리	환경 관리	조사	데이터 관리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웹 개발	금속, 전기, 화학 관련	
번역 및 통역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이벤트 관련 분야 등		

▶ 취업 매칭 프로세스 (기업 참가비 무료)

1. 기업회원 등록: 기업이 양식에 맞춰 간단한 회사 소개, 채용 예정 직원의 직무 기입 후 제출
2. 교육생에게 홍보: 회사와 직무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육재단 JAI가 홍보
 - 교육생 그룹방에 홍보
 - 취업 매칭 홈페이지 (<https://kwork-indonesia.com>)에 홍보
3. 지원자 모집: 면접에 필요한 기본 질문 답변서 기입 후 지원자가 제출 (기업의 편의 도모)
4. 선별 및 추천: 직무와 채용 조건에 맞는 후보자 선별 후 관련 서류 기업에 전달
5. 인터뷰 및 채용: 관련 서류 기업이 검토 후 필요한 인원 인터뷰 후 채용

▶ 주요 일정

기업회원 모집: 2026년 9월 21일 (월) ~ 10월 23일 (금)

온라인 상시 매칭: 2026년 10월 1일 (목) ~ 11월 12일 (목)

Job Fair 현장 매칭: 2026년 11월 12일 (목) 오전 9시 ~ 오후 4시

장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자카르타 Global Business Center (GBC)

▶ 문의: Yayasan Jendela Asa Indonesia (JAI)

- www.jendela.org

+62 822-8563-7228 (Cicilia)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현지 인재를 연결합니다.”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은 “아리아리 아라리오, 제9회 재인도네시아 문예총 종합예술제

- 김준규 문예총 회장 “예술로 서로 다른 문화 잇고, 세계와 소통하는 다리 될 것”
- ‘제8회 적도문학상’ 시상식 함께 진행, 1층 전시·4층 공연으로 전 세대 아우른 화합의 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김주명 사무국장 제공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회장 김준규)가 주최한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가 지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자카르타 롯데쇼핑에비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08년 한인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14개 문화예술 단체를 하나로 묶어 출범한 문예총은 2014년 첫 종합예술제를 시작한 이래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종합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 예술제는 “아리아리 아라리오”를 대주제로 내걸고,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의 평화와 화합 정신을 문학과 미술, 무용, 음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예술제의 서막은 개막 전날인 11일 밤 10시, 롯

테쇼핑에비뉴의 폐점과 함께 분주하게 올랐다. 지하 하역장에 대기하던 행사 대행사 인도웹 직원들과 참가 단체 회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무대 비품을 설치하고 전시 작품을 반입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축제의 장을 완성해 나갔다.

이번 예술제는 1층 메인 아트atrium(Event Atrium)에서 열린 전시 분과와 4층 아이스 팰리스(The Ice Palace) 홀에서 펼쳐진 공연 분과로 나뉘어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1층 메인 아트atrium 채운 시각예술의 향연... 시화·민화·꽃 꽃이·체험 부스 ‘풍성’

전시 분과에서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김준규)가 김준규 회장의 ‘커피’, 그리고 문협 회원이자 한인회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완 수석부회장의 ‘선물’ 등 회원 대표작 10편을 수준 높은 시화로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교육장학 및 문화예술 성과를 이끌고 있는 이지완 수석부회장은 이날 한인회를 대표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문협 회원 작가로서도 직접 작품을 출품해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꿈캘리협회(회장 오순옥)는 ‘아리랑, 획이 되다’를 소주제로 8인 작가의 목향 짙은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13일에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름, 꽃피우다” 캘리 족자 쓰기’와 ‘단청 책갈피 꾸미기’ 체험 부스를 운영해 현장을 찾은 한인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인꽃꽂이회(회장 김수남)는 이번 예술제 주제인 “아리아리 아라리오”를 한국 전통의 미가 깃든 대형 꽃꽂이 조형물로 구현해 찬사를 받았으

며, 목향 민화협회(회장 최호운)는 최호운 회장의 ‘일월오봉도(오봉일월도)’를 비롯해 회원들이 정성껏 완성한 다채로운 전통 채색 민화들을 선보였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회장 김태호) 역시 8인의 개성 넘치는 회화 작품들로 아트리움을 격조 높게 수놓았다.

한인사회 원로·각계 인사 총출동… ‘적도문학상’ 시상과 개막 선언으로 포문

12일 오후 2시 메인 아트리움에서는 개막 테이프 커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준규 문예총 회장과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한인회를 대표한 이지완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우재 한인회 명예고문, 신기엽·양영연 한인회 명예회장,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 등 한인사회 원로 및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함께 테이프를 끊고 전시 공간을 두루 살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4층 아이스 팰리스 홀에서 본 행사가 열렸다. 오프닝 세레머니로 김준규 문예총 회장이 자작시 ‘언어 아리랑’을 낭송하며 객석에 목직한 울림을 선사했다.

식전 행사로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가 주관하는 한인 문학의 산실, ‘제8회 적도문학상’ 시상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명숙 씨(「고슴도치 갑옷을 벗다」)를 비롯해 우수상의 고대권 씨(「사계」)와 박상호 씨(「집의 밀도」), 장려상의 신상지 씨(「청경채와 당근」) 등 총 4명의 문인이 수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한인 문학의 탄탄한 저력을 입증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김준규 문예총 회장은 “종합예술제의 테마인 ‘아라리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언어와 예술이 어우러지며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울림”이라며 “회원들이 열정으로 빚어낸 이번 축제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문화의 가교이자 세계를 향한 예술적 소통의 창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며 한인 문학의 저변을 넓혀 온 김준규 회장은 2025년 1월 제10대 문예총 회장으로 취임해 문협과 문예총을 함께 이끌고 있다. 오랜 세월 문협을 탄탄하게 견인해 온 김 회장의 균형 잡힌 리더십에 대사관과 한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지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문화

예술 분야가 한층 더 깊이 있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많은 해외 한인 행사를 경험해 보았지만, 이번 예술제는 단연 규모와 질적 완성도 면에서 독보적”이라며 “어린아이부터 한인사회의 원로들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한인회 문화예술 부문을 총괄하는 이지완 수석부회장이 한인회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힘찬 개막 구호를 외치며 본격적인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4층 아이스 팰리스 메운 3시간의 선율… 클래식·전통 무용·국악이 빚어낸 깊은 감동

3시간 동안 진행된 본 공연은 클래식과 전통 국악, 대중음악을 아우르며 객석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유은영 회장이 이끄는 재인니 한인 음악협회는 서정적인 한국 가곡 ‘마중’과 나폴리 가곡 ‘오 솔레 미오(O Sole Mio)’로 품격 있는 성악 무대를 열었으며, 이어 앙상블로 편곡된 ‘바이올린을 위한 아리랑’과 디즈니 메들리(‘Once Upon a Disney Dream’)를 연주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뒤이어 오른 자카르타 한국무용단(단장 정방울)의 무대는 미술과 춤, 그리고 모녀(母女) 예술가의 특별한 교감이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전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정 단장의 어머니인 박정자 화백의 회화 작품이 투사된 가운데, 정방울 단장은 화폭을 배경 삼아 단아한 ‘이매방류 살풀



이춤'을 선보였다. 어머니의 붓끝이 담아낸 서정과 딸의 유려한 춤사위가 조화를 이룬 이 무대는 타향살이의 정한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어 무대에 오른 JKCC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합창단(단장 송예선)은 '신나는 꿈여행'을 시작으로 '꿈꾸는 아기고래'와 '벚꽃 팝콘'까지 총 세 곡을 맑고 청아한 음색과 사랑스러운 율동으로 들려주어 객석에 환한 미소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분위기를 이어받은 사물놀이패 '장구랑 나랑' (회장 박형동)은 방탄소년단(BTS)의 '아리랑'과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를 역동적인 전통 타악 가락으로 재해석한 과격적인 퓨전 무대로 장내 열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재인도네시아 색소폰 동호회 '색동회' (회장 이강웅)는 '머나먼 고향', '나는 행복한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 등 세 곡을 중후하고 풍성한 관악 앙상블로 연주하며 타향살이에 지친 한인들의 마음에 짙은 향수를 달래주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JKWC 자카르타 한인 여성합창단 (단장 송예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흥겨운 '붉은 노을', 뮤지컬 맘마미아의 대표곡 'Thank you for the music'까지 다채로운 하모니를 빚어내며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여기에 찬조 출연으로 힘을 보탠 청소년 K-POP 댄스팀 'K-ART' (나하진·나하선·나하민)는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 재인니 자카르타 한인 오케스트라 KISO(대표 허민경)는 쇼스타코비치 모음곡 첼로 앙상블 연주로 클래식적 깊이를 전한 데 이어, 벽찬 감동의 관현악곡 ‘아름다운 나라’를 웅장하게 협연하며 객석에 전율을 안겼다. 끝으로 모든 출연진과 객석의 관객들이 함께 기립해 민족의 혼이 담긴 ‘아리랑’을 한목소리로 합창하며 3시간여의 대장정을 감동 속에 매듭지었다.



“한인 자긍심 깊이 새긴 축제”... 성공적 폐막과 함께 다가올 10주년 기약

행사를 관람한 한인사회의 한 원로는 “사전 리허설 때부터 출연진의 남다른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의 품격과 공연의 완성도 모두 국제적인 축제라 불리도 손색없을 만큼 훌륭했다”라며 “고대와 현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보며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다. 일사불란하게 행사를 준비해 준 문예총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황리에 제9회 행사를 마무리한 문예총 종합예술제는 내년으로 다가온 ‘10주년 행사’를 기약하며,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문화적 연대와 긍지를 드높이는 중심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차세대의 꿈을 밝혀준 소중한 정성,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제2회 2026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 후원자 명단 누락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지난 8월 14일 열린 ‘제2회 2026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자선골프대회’는 동포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150여 명의 참가자와 각계 기업·단체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 총 13억 900만 루피아의 기금을 모아 이 중 4억 3,000만 루피아는 자카르타한국 학교(JIKS)와 다문화가정 장학생에게 우선 전달되어 학생들의 배움을 잇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에서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차세대의 내일을 지켜주고자 하는 동포사회의 마음입니다. 후원 구좌의 등급이나 후원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포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신 정성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똑같이 소중하고 값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뉴스>는 지난 9월호에 후원자 명단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편집상의 착오로 ‘실버(Silver) 후원자’ 스무 분의 명단을 누락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차세대를 향한 순수한 응원의 마음에 세심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후원자분들과 독자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료 확인과 편집 마감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입니다.

이에 10월호 지면을 통해 누락되었던 실버 후원자 스무 분의 명단을 바로잡아 게재합니다.

■ 제2회 재인도네시아 한인청소년 장학기금 후원 - ‘실버(Silver)’ 후원 명단

No.	이름	단체명/기관명/회사명	직책
1	김영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SUNG CHANG INDONESIA	고문 / 회장
2	손한평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DONGSAN HOLDINGS	고문 / 대표
3	신규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INDO SUNG IL JAYA	고문 / 대표
4	조규철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DONG JUNG INDONESIA	자문위원 / 대표
5	김재홍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DAE IN TECH INDONESIA	부회장 / 대표
6	조명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부회장 / 은행장
7	최재혁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HILON INDONESIA	부회장 / 대표
8	강대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INKOR MARINE SERVICE	이사 / 대표
9	김서겸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ACCENTUATES	이사 / 대표이사
10	김시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한화생명	이사 / 법인장
11	안창섭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PETRASAKTI MADYATAMA	이사 / 대표
12	유용선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DAEHWA INDONESIA	이사 / 대표
13	이근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DONGBANG INDO	이사 / 대표
14	박성대	땅그랑반튼 한인회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HANJIN INDONESIA JAYA	회장 / 고문 / 대표
15	강선학	재인니 완구협회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ALPHA TOY INDONESIA	회장 / 자문위원 / 대표
16	황의상	재인니 한국 건설업 협의회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SEPULUH SUMBER ANUGERAH	회장 / 이사 / 대표
17	서준형	월드 옥타 자카르타지회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PT. TACHYON INDO	지회장 / 이사 / 대표
18	강필성	PT. HD CONSTRUCTION EQUIPMENT HYUNDAI INDONESIA	대표이사
19	민현기	PT. MIN GOOK	회장
20	이종금	DAGO RESTAURANT	대표

동포사회가 함께 모아주신 성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정성을 결코 잊지 않고,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지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한인뉴스> 편집국 일동

10월 국군의 날, 한국 국군과 인도네시아군(TNI)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K-팝 스타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모습은 글로벌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한국 군대와 국방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력은 세계 5~6위권으로 평가받으며 강력한 안보 주체로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거대 국가 인도네시아 역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안보의 중추인 군(TNI)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마침 10월은 두 나라의 군대를 깊이 있게 돌아보기에 적절한 시기다. 매년 10월 1일은 한국의 국군의 날이며, 나흘 뒤인 10월 5일은 인도네시아 국군의 날이다. 날짜는 나란히 붙어 있지만, 두 기념일에 담긴 역사적 뿌리는 다르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고, 인도네시아는 독립선언 직후 군대를 창설한 날을 기린다. 한국 국군의 날은 1956년 육·해·공군의 기념일을 통합하며 정해진 것이어서, 국군 전체가 이날 창설됐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1945년 10월 5일 인민보안군(TKR)이 창설됐고, 이를 거쳐 1947년 지금의 TNI(인도네시아 국민군)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흥미롭게도 두 나라의 군대는 모두 식민지 지배의 종식과 함께 태어났다. 한국의 창군 과정에는 독립군과 한국광복군뿐만 아니라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도 참여했다. 육군은 국방경비대에서, 해군은 손원일의 해방병단에서, 공군은 중국 등지에서 항일 항공 활동을 펼쳤던 최용덕 등의 헌신에서 출발했다. 인도네시아군 역시 일본 점령기의 향토방위군(PETA)과 네덜란드 식민지군(KNIL), 무장 독립투쟁 세력이 한데 뭉쳤다. 독립전쟁을 이끈 수디르만은 PETA 출신이었고, 우립 수모하르조는 KNIL 출신이었다. 배경은 달랐지만 '독립과 주권 수호'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전쟁은 두 군대의 성격을 형성한 결정적 경험이었다. 한국 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병력과 조직이 확대됐고, 미국의 군사원조와 훈련을 바탕으로 정비되었다. 인도네시아군은 일제 패망 후 인도네시아를 다시 점령하려던 네덜란드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수카르노 정부와 함께 신생국가 설립에 협력하면서,

“우리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기관이면서, 이 나라를 함께 세운 주체”라는 깊은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 훗날 군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배경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다.

인도네시아군의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군이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정치와 사회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이중기능(드위풍시)’이다. 수하르토 시대에는 군·경을 통합한 ABRI 체제를 통해 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요직을 장악했으며, 재단과 기업을 통해 직접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축했다. 한국 역시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광주 등 군부의 정치 개입과 뼈아픈 역사를 남겼다. 나라를 지킨 공헌과 정치 개입의 책임은 모두 군의 역사에 포함되며, 방위산업의 성과는 정치적 책임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군이 경제에 미친 영향은 산업 현장에서도 뚜렷하다. 한국에서 군은 정기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큰 고객이었다. 베트남 파병 당시 대량 생산과 보존 기술을 요구했던 ‘김치 군납’은 오늘날 K-푸드 산업의 밑거름이 되었다. 전투식량의 가공·발열 기술은 캠핑용 식품으로 이어졌고, 제복 납품은 초기 의류 대량생산의 축이 되었다. 무기 개발에서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 설립과 국산화 노력이 조선업(울산함 등)과 항공산업(KT-1, T-50, FA-50, KF-21)의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서 두 나라의 이야기가 다시 만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훈련기를 도입하고 전투기 공동개발(KF-21)에 참여했다. 한국에는 수출과 협력의 기회였고, 인도네시아에는 자주국방과 기술 경험을 쌓는 시도였다.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려면 상호 신뢰와 약속 준수가 필수적이다.

군의 장비가 발전하는 동안 민주화 개혁도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 퇴진 이후 ‘레포르마시(개혁)’를 통해 군과 경찰을 분리하고 의회 할당 의석을 폐지했다. 한국 역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했다.

10월의 두 기념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날이자, 군이 국민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날이다. 양국 군대는 국가 형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정치 개입의 역사도 남겼다. 나라를 지킬 능력을 갖추는 일과 국민의 통제를 받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 [끝]

용어 설명

약자	원어	전체 명칭 (영어)	한국어 명칭
TKR	Tentara Keamanan Rakyat	People's Security Army	인민보안군
TNI	Tentara Nasional Indonesia	Indonesian National Armed Forces	인도네시아 국민군
PETA	Pembela Tanah Air	Defenders of the Homeland	향토방위군
KNIL	Koninklijk Nederlandsch-Indisch Leger	Royal Netherlands East Indies Army	왕립 네덜란드령 동인도군
ABRI	Angkatan Bersenjata Republik Indonesia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인도네시아공화국군

※ KNIL의 원어는 네덜란드어이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어다. 항공기의 KT-1·T-50·FA-50·KF-21은 기종을 구분하는 형식명이다.

인도네시아 한류 팬덤, 추석맞아 하나로 뭉치다

- 한류와 한국 전통문화로 잇는 우정의 한마당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다양한 K-Pop 팬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선의의 경쟁과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눴다. 약 300명의 한류 팬들이 참가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함께 행사를 즐겼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이상전)은 인도네시아 최대 한류 포털 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 코파맥(CoppaMagz)와 함께 9월 26일(토) 자카르타 소재 몰에서 「K-팬덤 한가위 슈퍼매치 - Road to Super Fandom Wa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Pop을 매개로 다양한 팬덤이 교류하고, 추석과 한국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팬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K-Pop을 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정혜관 공사(부대사)가 참석해 추석 인사와 덕담을 전했다. 정 공사(부대사)는 한국의 추석과 인도네시아의 이돌 피트리(Idul Fitri)가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라는 공통점을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소중한 우정의 다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의 우호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우정과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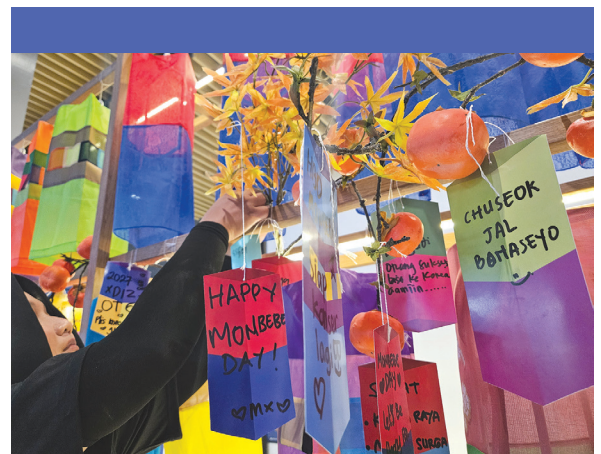
행사장에서는 한복 입어보기, 송편 맛보기, 청사초롱 소원벽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송편을 맛보며 한국의 추석 문화를 경험했으며, 소원벽에 각자의 바람을 적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00여 명의 팬덤 참가자들은 총 7라운드에 걸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널리 알려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 K-Pop 아이돌 사진 퍼즐, 한복 입고 전통놀이 릴레이 등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수행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열띤 응원과 함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와 팬덤의 이름을 외치며 우승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으며, 탈락한 참가자들도 남은 팀을 응원하며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이번 행사는 한류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 다른 팬덤이 만나 한국의 전통문화와 명절을 함께 경험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교류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됐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한류 팬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AI 시대, 한 교사의 ‘바이브 코딩’ 이야기

- 인도네시아 교실과 4년간 쌓은 국제교류 프로젝트가
시뮬레이션 게임이 되기까지

2026년, 이제 정말 ‘대(大)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개발자만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코딩을 한 줄도 배운 적 없는 평범한 사람도 AI에게 말을 걸듯 대화하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쓰는 세상이 열렸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다.

여기 한 교사의 바이브 코딩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가 빚어낸 이야기 속에는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오간 따뜻한 관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

■ 4년간 이어온 국제교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창근 교사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무대로 4년째 한국과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잇는 국제교류 수업을 이끌어온 교육 전문가다. 화상으로 시작된 공동 프로젝트 수업은 현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 교류 활동으로 이어졌고, 두 나라 학생이 함께 무대에 서는 축제 ‘PEACE’로 결실을 맺었다. 2023년 첫 행사는 온 힘을 다해 따뜻하게 맞아준 인도네시아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이창근 교사가 직접 자카르타의 한 장소를 대관하고 호스트를 맡아 연 작은 문화 행사였다. 그 후 행사는 지난해 5개 학교가 참여하는 규모로 훌쩍 성장했다.

이창근 교사는 늘 강조한다. “국제교류는 한 번

의 만남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래 이어가는 관계다.” 그의 수업 철학이자, 이번에 그가 만든 게임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게임이 된 수업

이 교사는 학생들이 남긴 수업 소감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최근 ‘월드메이트’라는 게임을 만들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국제교류 동아리에 들어가 1년을 보내는 성장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아이들이 쓴 글에 ‘화상으로 외국 친구를 만나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설렘을 느껴볼 수 있으면 해서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앞서 말한 바이브 코딩을 십분 활용했다. AI의 도움을 받아 혼자 코딩을 익히며, 반년여의 작업 끝에 실제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완성해냈다.

■ 게임 속에 담긴 4년

게임 안에는 그가 실제로 운영해온 수업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게임을 시작하면 먼저 주인공의 이름을 정하고 학교를 고른다. 학교마다 위치한 지역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국제교류 수업의 결도 조금씩 달라진다. 북도에서 우연히 만난 선생님과의 대화가 국제교류 동아리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된다.

동아리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일본, 이탈리아 등 10개국 가운데 한 곳을 골라 그 나라 친구들과 화상으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인도네





시아 학교 친구 ‘아유’가 화면 너머로 “만나서 반가워, 뭘 좋아해?”라고 서툰 한국어로 물어온다.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아유와의 관계가 달라

지고, 그 관계가 나중에 뜻밖의 이벤트로 돌아온다. 대화 속 선택에 따라 **언어소통, 관계공감, 문화이해** 등 여섯 가지 능력치도 조금씩 자라난다.

수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운타운에 나가 의상을 사서 갈아입히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골라 보낸다. 특별한 인연과의 이야기가 쌓이면 그때부터 특별한 일정들이 열린다. **월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학생 홈스테이 교류, 해외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그가 매년 자카르타에서 직접 기획해온 ‘**PEACE**’ 행사까지, 실제 그의 수업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하나하나 게임 속 이벤트가 되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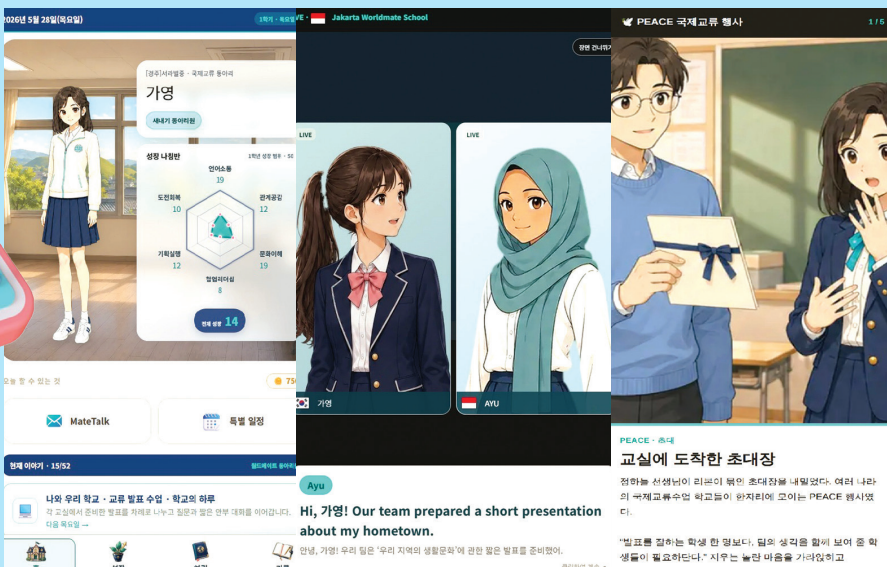
1년의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학생은 자신이 걸어온 선택에 따라 두 편의 엔딩을 만난다. 가까운 미래의 나, 그리고 먼 미래의 나. 어떤 선택을 쌓아왔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도록 설계했다. 단순한 게임의 끝이 아니라, “내가 이런 1년을 보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상상해보게 하는 진로 교육의 장치이기도 하다.

“게임도 수업과 같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어서 다시 켜게 되는 것. 그게 관계가 이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 누구나, 지금 바로

흥미로운 점은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교사에게는 동아리 1년 운영을 미리 경험해보는 시뮬레이터가, 동아리 학



생에게는 앞으로 겪을 1년을 미리 체험하는 안내서가 된다. 국제교류와 직접적인 연이 없더라도 한 편의 성장 서사 게임으로 손색이 없다.

월드메이트는 현재 공개 베타 서비스 중이다. 별도의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아래 링크를 열기만 하면 스마트폰과 PC 어디서든 바로 즐길 수 있다.

자주 즐기고 싶다면 앱처럼 홈 화면에 추가해둘 수도 있다.

- 아이폰(Safari): 링크 접속 후 하단 ‘공유’ 버튼(□↑) 선택 → ‘홈 화면에 추가’
- 안드로이드(Chrome): 링크 접속 후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 선택 → ‘홈 화면에 추가’ 또는 ‘앱 설치’

이렇게 하면 게임이 하나의 앱처럼 홈 화면에 자리 잡아, 다음부터는 아이콘만 눌러 바로 시작할 수 있다.

<https://worldmate-beta.web.app>

백문이 불여일견. 링크를 열면 당신도 곧 중학교 1학년이 되어, 낯선 나라의 친구에게 처음 인사를 건네게 된다. 2분이면 충분하다. 그 설렘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껴보시길.

한인뉴스 편집국

인도네시아어연구소장, 하영지의 책세상

하영지 | 인도네시아어연구소 소장



“인도네시아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통역 현장에서,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사실 언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외우고, 복습하는 것. 언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저 역시 지금도 이런 기본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언어를 내 언어로 잘 이해하고 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내가 가진 언어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생각과 표현의 폭을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장에 쌓인 이야기

책장은 제게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책장을 바라보며 책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

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공간 효율 때문에 책을 많이 사두지는 않지만, 마음에 남는 책은 한국어와 영어, 인도네시아어 등 가능하다면 언어별로 한 권씩 곁에 둡니다. 같은 문장이 다른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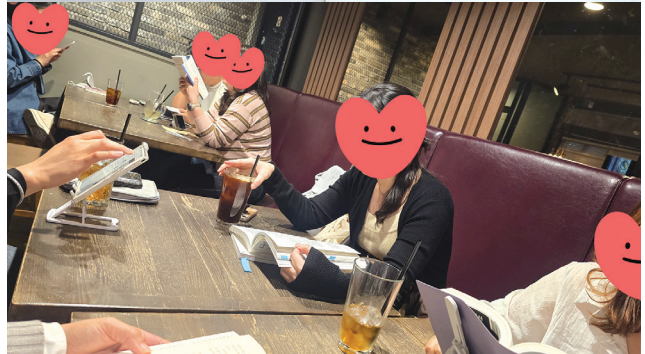
그래서 제 책장에는 책뿐 아니라 그때의 관심과 마음, 기억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무엇을 남기느냐일 것입니다. 문장을 기록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책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함께 읽으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한장한잔’ 독서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6. 06. 28	2026. 06. 28	2026. 06. 28	2026. 06. 28
21. 2026. 07. 02	상하반지 앞은	영향	미비된 A 일터 (이탈)
22. 2026. 07. 12	유연 여행	영향	2026. 07. 12
23. 2026. 07. 19	영향	영향	2026. 07. 19
24. 2026. 08. 02	영향	영향	2026. 08. 02
25. 2026. 08. 02	영향	영향	2026. 08. 02



책을 읽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생각과 표현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책은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던 책을 함께 나누다 보면, 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언재를 끝내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한인뉴스』에서의 연재를 마칩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인 여러분께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서 삶을 꾸려가시는 한인동포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와 좋은 소식이 『한인뉴스』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를 마련해 주신 『한인뉴스』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부분과 떠올리는 생각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 문장에 오래 머물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혼자 읽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책의 다른 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 독서모임은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한 자리라기보다 책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책이 넓혀준 세계

이런 경험은 제가 언어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통역하는 일과도 닿아 있습니다.

통역은 단어를 다른 언어의 단어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가진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만큼 **내가 가진 언어와 생각의 폭을 넓히는 일**도 중요 합니다.

통역·번역·출강 문의
카카오톡 검색: 인도네시아어연구소
Instagram: lina_bahasa
E-mail: youngji1211@naver.com
전화: +82) 010-4760-8789

다섯 번째 이야기 <배신으로 살고 신으로 죽은 하리하라 석상>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역사 속 수많은 영웅들이 이 말을 증명했지만, 라덴 위자야(Raden Wijaya)만큼 이 말에 딱 맞는 인물도 드물다. 지난 두 달에 걸쳐 우리는 싱하사리 왕국의 마지막 왕 끄르파나가라의 이야기를 했다. 군도를 하나로 묶으려 했던 야망과 비전, 몽골 사신의 얼굴에 낙인을 찍고 귀를 자른(원나라 공식사서 기록) 배포, 그리고 비전의 실행으로 수마트라에 보낸 빠말라유 원정단과 아모가빠사 석상. 그렇게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 어떻게 허무하게 죽고 왕국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더 큰 제국이 탄생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전성기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

1292년, 끄르파나가라는 궁궐에서 탄트라 의식을 거행하며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군대의 주력은 멀리 해외 원정 중이었다. 수마트라, 발리, 말

레이 반도까지 영향력을 뻗치던 왕국이었지만, 정작 수도의 방어는 허술했다.

그 틈을 노린 것이 끄디리(Kediri) 왕국의 영주 자야жат왕(Jayakatwang)이었다. 싱하사리의 속국이었던 끄디리의 영주가 본국을 뒤희는 것이다.

자야жат왕은 치밀했다. 먼저 북쪽으로 소규모 군대를 보내 끄르파나가라의 시선을 끌었다. 북쪽 침공을 알아챈 끄르파나가라는 사위 라덴 위자야를 북쪽으로 보내 진압하게 했다. 바로 그 순간, 남쪽에서 본대가 탐지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의 수도로 진입했다. 멀리 내다보던 왕이 발밑을 보지 못한 것이다. 기습은 성공했고, 끄르파나가라는 신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군도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비전을 가졌고, 세계 최강 몽골의 요구조차 단호하게 거절했던 배포 있는 왕의 마지막은 허망했다. 왕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치욕의 숲, 그리고 기회의 도래

끄르파나가라의 사위 라덴 위자야는 선혈이 낭자한 궁궐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싱하사리의 옛 고위 관료가 영주로 있는 마두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자야жат왕에게 사신을 보내 왕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노라 선언하며 완전한 항복 의사를 밝혔다. 자야жат왕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동부 자바의 황량한 밀림- 따릭(Tarik)을 하사하며 조용히 살 것을 요구했다.

와신상담(臥薪嘗膽)(:설 위에 누워 쓸개를 핥으며 치욕을 견딘다는 말)이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그 밀림에서 라덴 위자야가 따서 먹은 열매에서는 쓴맛이 났다. 마자(Maja)라는 열매였다. 그는 그 쓴맛을 기억하며 자신이 개간한 이 마을에 이름을 붙였다. **마자빠히트(Majapahit)**. 마자



라덴위자야 상상도 | 출처:위키피디아

“커켜이 쌓인 이야기를 양범은 도슨트가 밝켜 드림”

(주: 원작자의 의도에 따라 '켜'를 강조하기 위해 '밝켜'로 표기했습니다)

(열매)와 빠-hit(쓴맛)의 합성어. 훗날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될 그 이름은, 이렇게 치욕과 쓴맛 속에서 태어났다.

그때 운명처럼 구원자가 나타났다. 1293년 초, 쿠빌라이 칸이 보낸 원(元)나라의 보복 원정대, 시비(Shi Bi), 이크 메세(Ike Mese), 가오싱(Gao Xing) 세 장군이 이끄는 1,000척의 함선과 2~3만의 대군이 자바 북쪽 해안 투반(Tuban)에 상륙한 것이다.

적의 손으로 적을 처단하다

라텐 위자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사신을 원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끄르따나가라는 이미 죽었다. 지금 자바를 장악한 자야жат왕이 진짜 원흉이다. 제가 원나라를 도와 자야жат왕을 처단하겠다. 승리 후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겠다."

원나라 장군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여차피 보복을 하러 왔는데 끄르따나가라가 이미 죽었으니 누구를 치든 상관없다. 게다가 현지 사정을 아는 협력자가 먼저 조공까지 약속하며 나선 것이다. 셋 중 가오싱만이 "이 자를 믿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이것은 원사(元史)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결국 다수결에 밀렸다. 동맹은 성사됐다.

라텐 위자야와 원 연합군은 자야жат왕의 궁으로 진격했다. 4월 26일 다하(Daha) 전투에서 자야жат왕의 군대 5,000명을 전사시키고 수천 명을 강에 수장시켰다. 자야жат왕은 사로잡혀 원나라의 배 안에 포로로 갇혔다가 그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싱아사리의 적이 또다른 적에게 처단된 것이다.

마지막 반전 - 은인을 쫓아내다

승리 직후, 라텐 위자야는 원나라 장군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조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먼저 마자빠히트로 돌아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들께서 왕비와 아이들이 있는 궁으로 오실 때는 무기를 내려놓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비와 아이들이 무기를 무서워할까 염려됩니다."

이 달콤한 말 한마디에 시비와 이크 메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오싱만이 "이 자를 믿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이것은 원사(元史)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또 다시 목살되었다. 원나라 정예 호위대 수백 명이 무장해제 상태로 라텐 위자야를 따라나섰다.

라텐 위자야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무장해제된 원나라 정예대를 먼저 기습 섬멸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 방심한 채 궁에 남아있던 원나라 본군을 밀림 속에서 기습했다. 아무리 천하무적 원의 대군이라도 지금은 달랐다. 열대의 더위, 풍토병, 밀림 지형, 몽골 기병이 제 기량을 펼 수 없는 환경이었다. 결정적으로 문순 계절풍이 돌아서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기를 놓치면 6개월간 자바에 발이 묶인다. 퇴각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쿠빌라이 칸은 분노했다. 귀국한 세 장군에게는 혹독한 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자바는 끝내 원나라의 발아래 놓이지 않았다. 이듬해 1294년 쿠빌라이 칸은 세상을 떠났고, 원나라는 두 번 다시 자바를 넘보지 않았다.

폐허 위에 세운 제국, 마자빠히트의 탄생

1293년, 라텐 위자야는 바로 그 밀림 타릭(Tarik) 인근에 새 왕국을 세웠다. 마자빠

hit(Majapahit)이었다. 쓴 열매를 먹으며 치욕을 견디던 그 밀림이 새 제국의 발상지가 된 것이다. 공식 왕명은 끄르따라자사 자야와르다나(Kertarajasa Jayawardhana).

여기서 라자사(Rajasa)는 싱하사리를 세운 시조 켄 아록(Ken Arok)의 왕실 계보를 잇는 이름이다. 새 왕국이지만 싱하사리의 정통성과 군도 통합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선언, 이름 하나에 그 모든 뜻이 담겨 있었다.

돌에 새겨진 왕, 하리하라 석상

국립박물관에 바로 이 라텐 위자야를 형상화한 석상이 있다. 동부 자바 블리타르(Blitar)의 쉼버르자티 사원(Candi Sumberjati)에서 발견되어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온 이 석상. 박물관 야외 정원의 커다란 돌판 사이사이로 초록 잔디가 올라오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보이는 **아르짜 하리하라(Arca Harihara)**가 그것이다.

이 석상은 자바 왕실의 전통인 아르짜 빠르우주단(Arca Perwujudan) 왕의 사후 신격화 석상으로, 왕이 죽으면 그가 숭배하던 신의 형상으로 석상을 만들어 신전에 모시는 것이다. 라텐 위자야는 **하리하라(Harihara)**:시바(Shiva)와 비슈누(Vishnu)가 하나로 합쳐진 신)로 신격화됐다. 몸의 한쪽은 시바, 다른 한쪽은 비슈누로 두 신이 한 몸 속에 공존하는 도상으로, 힌두 문화권 전역에 존재하지만, 라텐 위자야를 하리하라로 신격화한 석상으로는 유일한 작품이다.

왜 시바이면서 동시에 비슈누인가

라텐 위자야는 본래 시바 신봉자였다. 그런데 왜 비슈누까지 합쳐진 신으로 신격화됐을까.

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분석한다. 싱하사리 왕실의 공식 종교는 탄트라 불교(시바-불교의 융합)였지만, 귀족과 백성들 중에는 비슈누를 믿는 집단



Arca Hari Hara | 국립 인도네시아 박물관

이 상당했다. 새 왕국을 세우려면 다양한 집단의 지지가 필요했다. 시바 신자들도, 비슈누 신자들도 모두 끌어안아야 했다. "나는 당신들 모두의 신을 섬긴 왕이며, 그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리하라 석상은 그 선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깊은 역사적 의미도 있다. **파괴의 신 시바**처럼 자야왓왕이 장악한 **싱하사리**를 파괴하고, **재창조와 질서의 신 비슈누**처럼 그 폐허 위에 마자빠히이라는 새 왕국을 다시 세운 인물, 혼돈이 무너진 그곳에 새 질서를 만들어낸 왕-하리하라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담은 형상이다.

다음 호에서는 이 라텐 위자야의 정실왕비, 가야뜨리 라자빠뜨니(Gayatri Rajapatni)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야망을 품은 왕의 딸로 태어나 새 왕국을 세운 왕의 아내가 되고, 딸을 여왕으로 만든 어머니, 라자사 왕족의 혈통을 마자빠히트에 이어준 살아있는 혈맥이자, 왕국의 흥망과 왕위를 잇기 위한 잔인한 혈투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킨 여인.

다음 달에 계속된다.

다음 호 예고: 왕의 딸, 왕의 아내, 여왕의 어머니, 가야뜨리 라자빠뜨니



PT CIPTA ORION METAL

고객을 향한 진심과 품질에 대한 책임,
PT CIPTA ORION METAL의 마음입니다.



CONTACT

✉ support@destec.co.id

☎ +62 851 8681 6511

📷 [destec_official](#)



destec

JIKS,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학습실(반딧불이관)’ 개관과 함께 2학기 ‘순공120’ 프로젝트 대장정 돌입

- 전용 학습 공간 대대적 현대화 완료... 9월 14일 2학기 ‘순공120’ 프로그램 본격 시동
- 1학기 동안 6명의 학생이 ‘순공 120시간’ 달성하며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의 결실 입증



자카르타한국학교(JIKS, 교장 이문성)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9월 14일(월)부터 2학기 ‘순공120(반딧불이)’ 프로젝트의 막을 올린다.

몰입과 휴식을 담은 최첨단 ‘반딧불이관’으로 재탄생

새롭게 단장한 JIKS의 자기주도학습실(반딧불이관)은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대적이고 쾌적한 인테리어로 대변신을 마쳤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개별 독서실형 책상과 협업 학습이 가능한 와이드 테이블을 조화롭게 배치하였으며,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세련된 조명 시스템과 우드톤의 아늑한 인테리어를 적용했다.

특히 학습실 벽면에 새겨진 “YOUR FUTURE BEGINS HERE”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와 “Carpe Diem” (“오늘을 붙잡아라”)이라는 문구처럼, 학생들이 오롯이 학업

에 몰입하며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학기의 뜨거운 성과를 이어받는 2학기 ‘순공 120’ 대장정

‘순공120’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계획을 바탕으로 한 학기당 순수 공부 시간 120시간 도달을 목표로 하는 JIKS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학기 운영 결과, 치열한 학업 속에서도 탁월한 자기관리 역량을 발휘하여 120시간 이상의 순수 몰입 시간을 당당히 달성한 6명의 학생(7학년 이, 8학년 이, 9학년 김, 10학년 박, 이, 11학년 한)이 공식 활동증명서를 수여받으며 큰 성취감을 맛본 바 있다.

이러한 1학기의 성공적인 성과와 뜨거운 열기는 새롭게 리모델링된 전용 학습 공간과 맞물려 2학기에 참여하는 53명의 학생들에게 더욱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생의 꿈이 곧 교육과정이 되는 학교”

JIKS는 새 학기를 맞아 시작되는 이번 2학기 ‘순공120’ 프로젝트를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과 학업 집중도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문성 교장은 “현대화된 자기주도학습실 개관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2학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소중한 성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1학기 125시간 기록... JKS 자기주도학습 '순공 120' 완주기



학생기자 한동훈 | JKS 11학년

자카르타한국학교(JKS)는 한 학기 동안 방과 후 자율학습을 통해 순수 공부 시간 120시간을 달성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순공 120(반딧불이)'을 운영하고 있다. 120시간을 완주한 학생에게는 학교장 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당초 통학 동선을 줄이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라는 학부모의 권유로 반딧불이 학습실을 신청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세부 규정을 알지 못했으나,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을 거치며 한 학기 120시간 누적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참여에 들어갔다.

학습실 운영 관리는 체계적이고 엄격했다. 매일 교사 한 명이 3시간 동안 상주하며 출결과 면학 분위기를 관리했고, 교장 선생님 역시 불시에 학습실을 방문해 점검했다. 방과 후 매점에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곧바로 자습실에 입실해 밤늦게 귀가

하는 일과가 반복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했으나, 철저한 감독 규정 덕분에 지정된 자습 시간을 누락 없이 채울 수 있었다.

장기간 이어지는 일정으로 인해 해당 학년 다수 학생이 과학실 자습을 중도 포기했다. 그 결과 1학기 최종 달성자는 본인을 포함해 학년 내 단 6명에 불과했다. 최종 기록 집계 결과 본인은 기준치인 120시간을 5시간 초과한 총 125시간을 달성했다.

학기 종료 후 학교장 상장(물병)을 수여받았으며, 이수자 자격으로 새로 리모델링된 '반딧불관' 개관 커팅식에 참여했다. 이번 참여를 통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자율학습을 지속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카페형 학습 공간으로 새로 단장된 반딧불관에서 2학기에도 '순공 120' 프로그램에 재도전해 연속 달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세대는 동포사회의 미래이자 당당한 주역,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글로벌 가교 되길”

-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정휴 회장님 인터뷰



학생기자 박승현 | ACS Jakarta 12학년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주니어 평통 2기 임명식



Q. 제22기 협의회 출범 이후 심 없이 달려오셨는데, 올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활동 목표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올 하반기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현지 공공외교 강화’, ‘청년·여성 자문위원의 능동적 참여’ 라는 3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공외교 강화: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세대 청년 및 동포 2세 통일역량 강화: 지역 협의회 자문위원과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교육 중심의 통일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 건의 내실화: 분기별 정책자문 정기회의를 통해 통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의성 있는 대북 정책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효성 높은 자문 건의서를 작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Q. 평소 '젊은 세대의 참여'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주니어 민주평통 단원들에게 기대하시는 역할과,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 중인 지원 계획이 궁금합니다.

주니어 평통 단원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통일 담론의 현대화’와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 입니다.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및 문화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다지고 차세대 리더십을 키워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주니어 평통이 기성세대와 차세대를 잇는 든든한 가교(Bridge)가 되어 세대 간 화합을 이끌고 협의회 전반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단원들이 한인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반으로 현지 사회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협의회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솔직한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일 정책 건의 및 협의회 실무 사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 지난 6월 한인 청소년과 현지 대학생들이 함께한 ‘2026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가 남긴 가장 큰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026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의 가장 큰 결실은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드높이고, 퀴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국가 안보, 남북 관계 및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점입니다. 역사와 안보, 통일 비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참가한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동남아 남부 여러 국가를 아우르고 있는 만큼, 현지 사회와 소통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교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공공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계의 깊이’, 그리고

현지 맞춤형 공감대 형성을 통한 ‘쌍방향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만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관심사와 문화적 특성을 깊이 헤아린 상호 교류가 공공외교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지식 교류, 정책·안보 공공외교, 차세대 및 교민 교류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현지 사회와 긴밀히 호흡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호적 지지 기반을 탄탄히 다져갈 계획입니다.

Q.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남부 지역 동포분들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포사회와 차세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세대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현지 사회에서 체득한 새로운 경험과 감각을 우리 커뮤니티가 능동적이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포사회의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자산을 승계하는 일은 전통을 단순 보존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재해석하여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스며들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를 짚어질 청소년 여러분이 ‘한인으로서의 뿌리’와 ‘거주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둘 모두를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자 자산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모국과 현지 사회를 든든하게 잇는 멋진 교량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에서도 청소년들과 동포 여러분의 발걸음을 늘 곁에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휴 회장 5개국 네트워크 강화, 민주평통 실천형 통일외교 박차



지난해 말 공식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22기 동남아남부협의회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올 하반기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까지 5개국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PT Geesan Indonesia 대표)은 취임 이래 현장 중심의 실천과 차세대 육성에 주력해 왔다. 본지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정휴 회장이 구상하는 하반기 역점 과제와 동포사회 발전 방향을 짚어보았다.

차세대를 보호 대상이 아닌 ‘동포사회의 주역’으로

이정휴 회장은 협회회의 최우선 과제로 차세대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위상 정립을 꼽았다.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돌봄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을 바꾸고, 현지 문화와 감각을 익힌 청소년들을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인으로서의 뿌리와 거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양자택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문화를 고루 체화한 배경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차세대의 강력한 자산이자 무기입니다.”

협회가 육성 중인 ‘주니어 민주평통’ 역시 청소년들이 디지털과 문화 활동을 통해 통일 담론을 젊은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세대 간 소통을 잇는 가교(Bridge)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동남아남부 지역 예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처럼, 주입식 교육 대신 퀴즈와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돕고 있다.

아세안 특수성 살린 ‘쌍방향 맞춤형 공공외교’

군주제와 공화제, 다채로운 종교가 공존하는 동남아 남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외교의 방식도 차별화한다. 이 회장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현지 주민의 관심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쌍방향 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의 외교적 중립성을 존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아세안 전체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구축하고, 현지 젊은 층에 친숙한 K-컬처와 한국어 교육 열풍을 문화·청년 교류로 접목해 우호적 지지 기반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대도시 중심 탈피… 외곽 교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평화

협의회 조직 운영에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자문위원이 명예직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뛰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정책자문 정기회의를 거쳐 정부 통일 정책 건의를 내실화하는 한편,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여론 수렴 창구를 통해 동포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과 외곽 지역 교민사회까지 아우르는 수평적 연대망을 형성하고, 광복절 행사나 한인 문화축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통일 포럼과 사진전을 개최해 화합을 도모할 방침이다.

“통일은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함께 가꾸어가는 일상입니다.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때 동포사회도 더 건강하게 결속할 수 있습니다.”

임기 2년 차를 맞아 세대와 지역의 벽을 허물고 아세안 전역에서 실천적 통일 활동을 펼쳐가는 제22기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정휴 회장이 제시한 로드맵이 모국과 주재국을 잇는 단단한 교량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한인뉴스 편집국

대입 준비하며 도전한 일본어 자격증 JLPT N2

학생기자 최윤희 | SPH Kemang 12학년



부모님의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나 네 살 때 인도네시아로 건너온 나는 어느새 고등학교 12학년이 됐다. 졸업까지 이제 한 학년을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자란 환경 덕분인 것 같다.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설기보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이 먼저 생겼다. 그 호기심이 이번에는 일본으로 향했다.

처음 일본에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저 사춘기 때 잠깐 생긴 관심이라고 생각하셨다. 12년 특례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도 있었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미국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선택지를 두고 일본에 가겠다고 하니 걱정하실 만도 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의 걱정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조금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결국 대학에 가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직접 부딪혀 보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프랑스, 브라질, 대만, 독일, 일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지만, 나는 수학보다는 언어를 배우는 일이 더 재미있었다.

내 이름의 ‘윤희(隼)’와 ‘희(稀)’에는 귀하고 빼어난 글썽씨를 지닌 사람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말과 글에 관심이 많았다. 방학 때 잠깐씩 한국을 오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한국어를 좋아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인도네시아어도 자연스럽게 익혔다. 11

학년 때 《한인뉴스》 학생기자로 활동을 시작한 것도 사람과 문화를 만나고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했다. 어릴 때 삼촌 옆에서 보던 애니메이션이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콘텐츠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의 사회와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다. 단순히 일본어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그곳에서 생활하며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진학을 일본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걱정도 많았다. 일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자주 들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 역시 비슷한 인구 구조와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일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찾아보면서 생각이 더 달라졌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와 실리콘 웨이퍼 등 주요 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TSMC 역시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건설하며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이 겪은 변화와 시행착오를 직접 살펴보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과 아시아의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I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지만, 나는 결국 사람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AI가 잘할 수 있지만, 사람과 대화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읽어내는 일에는 여전히 사람이 할 일이 많다. 일본에서 오래 이어져 온 장인정신이나 아날로그적인 방식도 이런 점에서 흥미롭게 느껴졌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이 직접 쌓아온 경험의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본을 진학 후보지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이 언어였다. 대학에 지원하고 실제로 생활하려면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최근 일본어능력시험(JLPT) N2에 합격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하나 더 갖췄다는 점도 기뻐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더 컸다. 처음에는 N2가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공부하다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조금씩 공부한 결과가 실제 합격으로 이어지니, 마음먹고 꾸준히 하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대학 원서를 준비하면서도 이 경험이 꽤 큰 힘이 될 것 같다.



돌이켜보면 나는 한국어로 내 뿌리를 배웠고, 인도네시아어로 내가 살아온 환경을 익혔으며, 영어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해 왔다. 이제 일본어라는 네 번째 언어를 더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려 한다.

번역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언어를 몰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직접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직접 알아가는 과정이 언어를 배우는 재미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자랐고,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내가 자란 동남아를 오가며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언어와 여러 문화 속에서 자란 경험이 언젠가는 나만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학년 때 학생기자로 시작하며 가졌던 궁금증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이제는 궁금한 것을 직접 찾아가 보고,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열여덟 살의 지금, 나는 대학 원서를 준비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울면서 웃으면서



김준규 | 시인·수필가·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목이 터지라 울면서 생을 시작한다. 우주의 작은 티끌 속에서 위대한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요, 간절하고 절실한 사랑의 결과이며 행운의 신호이다. 눈물은 사랑의 상징이며 구원의 호소이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번개처럼 달려간다. 배설로 불편한지 배가 고픈지 열은 없는지 불안해하며 아기의 상태를 살피고 빠른 대처를 서두른다. 아기가 평온해지고 잠을 자고 나면 두 번째 하는 행동이 웃음으로 시작한다. 아직 언어를 할 수 없는 새 생명에게 신은 울음과 웃음이라는 무기를 동시에 선사한 듯하다.

오감을 지닌 지구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울고 웃을 수 있는 동물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눈물은 사랑의 샘물이며 감정의 도가니이다. 눈물은 가슴속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이며 애타는 사랑의 가랑비다. 곁을 떠난 애인을 그리워하며 아린 가슴을 움켜잡고 영영 우는 연인을 보았는가! 자식의 불행을 보고 밤을 지새우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았는가!

사랑의 과정은 ‘생면부지’(生面不知)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부딪혀야 하는 운명이다. 웃으면서 만나지만 곧 노여움과 슬픔도 존재한다. 효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배려와 교감을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인식의 차이와 교감의 마찰로 서로 미워하고 노여워한다. 그러나 마음을 삭이고 웃음의 과정을 거치면 칼로 물 벤 듯이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다.

명심보감에 - 일시지분인경백일지우(一時之忿忍竟百日之憂) -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했다. 나를 위해서 청춘을 희생한 아내의 뒷모습을 보라! 공연히 눈물이 난다. 생존의 전선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는 남편의 노고를 생각하라! 부인 또한 눈물이 날 것이다.

사랑의 눈물이며 치유의 눈물이다. 그래서 부부는 또 웃으며 화합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 생애 첫 결혼식에서 주례는 “다정히 손목 잡고 함께 오래가기”를 강조하고 축원한다. 중간에 서로 돌아설 수 있음에 대한 우려의 경고가 아니겠는가!

“생사고락”(生死苦樂)

살고, 죽고, 울고, 웃는 것은 떨어진 관계가 아니고 뭉치처럼 함께 붙어 있다. 사람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울타리 속에서 어울려 사는 동물이다. 울타리를 이탈하는 것은 독선이며, 외로움이다. 생애를 마감하는 임종의 순간에도 우리는 웃으면서 위로하고 임종 후에는 눈물로 고인을 떠나보낸다.

“인생은 울면서 세상에 왔고
실컷 울고 웃다가 세상을 떠나간다.”

고슴도치 갑옷을 벗다



김명숙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

전남 광양 출생

1995년 인도네시아 이주

2023년 달서책사랑 전국주부 수필공모전 대상 수상(영남일보 주최)

나는 지독한 건강 염려증을 갖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결혼하고 인도네시아에 정착했을 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아이를 키우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중학교 졸업 이후 도시에서만 줄곧 살아온 나에게 낯선 이국땅의 시골 마을인 찌깁백에서의 생활은 모험 그 자체였다. 집 바로 앞엔 이슬람 사원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고, 커다란 확장기는 우리 집을 향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확장기를 통해 들려오는 아잔 소리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첫아이를 낳고 몸이 좋지 않아 1년간 한국에 머물다 돌아왔지만, 곧바로 산후우울증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날마다 잔뜩 겁을 먹은 고슴도치처럼 날을 세우고 있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나를 자책했고, 엄마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자존감은 바닥까지 곤두박질쳤다. 설상가상으로 첫아이가 3개월쯤 되었을 때 장염에 걸렸고, 그런 연유로 나의 건강염려증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건강염려증은 어느새 강박을 키우고 있었고 그 강박은 또다시 나를 완벽주의 성향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어쩌면 본래 기질적으로 내재 되어 있던 성향이 결혼 후에 환경이 바뀌면서 발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이런 성향이 정해진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아플 때도 가까운 병원보다 먼 거리의 자카르타 큰 병원을 고집했고, 그 때문인지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돌아오면 아이도, 남편도, 나도 어김없이 쓰러져 잠이 들곤 했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했고 다양한 경험을 핑계로 설 틈을 주지 않는 엄격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간간하고 지나치게 무서운 성정에 몸서리를 쳤었는데 나는 어느새 그런 아버지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 떠난 후.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나는 웃음기 사라진 낯선 모습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지금껏 입었던 갑옷이 오히려 자신을 몰아붙이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아이들과는 멀어졌고 외로움은 눈덩이처럼 더 커져만 갔다. 나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였을까. 아니면 오로지 성공시켜야 한다는 집념이 만든 집착이었을까?

나는 문득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만약 신이 나에게 다시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 준다면, 조금 더 많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여유를 주고 더 자주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을 것이다. 배낭 하나 둘러메고 길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며 길 위에서 스스로 세상을 배울 수 있게 묵묵히 기다려 주리라. 자신의 용돈을 모아 골목시장 좌판에 연로

하신 할머니의 시든 야채거리를 통째로 사 오고, 꼬박꼬박 길고양이의 먹이를 챙기는 아이의 수고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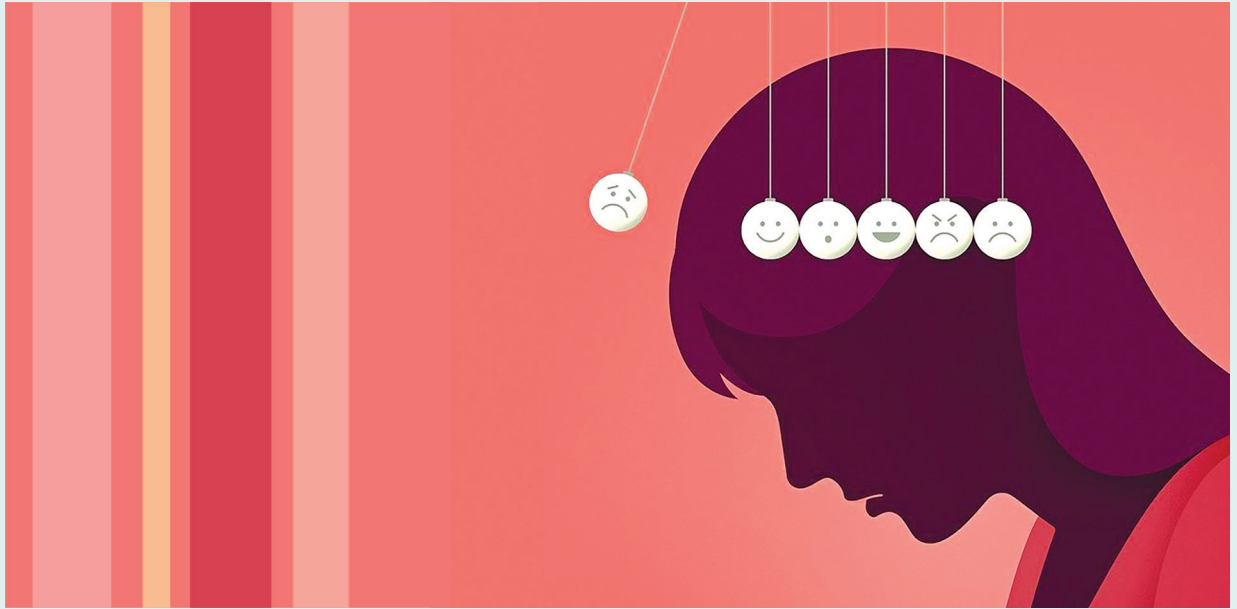
오늘따라 키 큰 야자수잎 사이로 보이는 청량한 하늘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공원 벤치 앞에 비둘기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는다. 뒤이어 여러 마리의 비둘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여기저기 모여들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년의 여자를 비둘기 떼가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비둘기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쪼아먹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줌 정도 되는 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보니 한 서너 달 전쯤부터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마다 비둘기가 떼 지어 모여있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야생에서 먹이를 찾아야 할 비둘기가 손쉽게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이미 익숙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요즘 들어 부쩍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아파트 담벼락 위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듯한 비둘기 떼가 웅기중기 모여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한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 머리 위를 확 덮쳐오는 비둘기를 피하느라 진땀을 빼는 아찔한 순간도 더러 있었다. 매번 야생의 비둘기에게 먹이를 직접 챙겨주는 그녀가 나는 영 마뜩잖았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에게서 예전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 또한 그것을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래전 내가 아이들을 내 안에 움켜쥐고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이이다.

나이 오십을 넘고서야 나는 고슴도치의 갑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그제야 아파트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넝쿨 잎도 보이고, 길모퉁이에서 바람에 하늘거리는 바나나 잎사귀의 춤사위에도 눈길이 갔다.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나를 옥죄던 강박이나 건강 염려증에서 조금씩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로지 아이들에게만 향했던 관심을 나에게로 집중하니, 소원했던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점차 회복되어 갔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빠르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자기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워나가야 할 기회를 빼앗았던 엄마였지만, 아이들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어 가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요즈음, 아침 산책길이 더없이 행복하다. 길을 걷다 만나는 참새들의 지저귀, 아파트 공원 화단에서 풀을 뽑다 마주치는 청년의 해맑은 웃음, 슈퍼 앞 길목에서 요란한 경적을 울리지 않고 무딘하게 기다려 주는 고마운 차량들, 그들 모두가 나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선물처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고슴도치의 갑옷 속에 갇혀서 소소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만 같았다. 틀린 것이 아닌, 그저 나와 좀 다른 것인데, 그때마다 성급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 당신은 언제나 텐션이 걸려 있다고 했던 남편의 얘기를 가볍게 지나쳤던 것도 내 몸에 가시가 박힌 줄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리라. 그 가시는 자신을 상처 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느리게 살아가는 일은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어느새 길을 걷다 떨어지는 꽃잎을 주워 책갈피에 끼워넣기도 하고,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생겼으며, 오고 가며 만나는 이웃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새로운 용기가 생겨났다. 고슴도치의 갑옷을 벗고 보니 그제야 그 안에 꿈꿨던 진짜 내가 보이는 것 같았다. 내일 아침 산책길에 비둘기 먹이를 챙겨주던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보리라.

“슬라맛 빠기, 이부” 라고.

● 수상소감

틈을 보이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허점투성이였다. 내가 만든 완벽이라는 사각의 틀은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냥 강박일 뿐이었던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 길을 걷고 꽃을 보며 맑은 하늘을 향해 참으로 오랜만에 긴 숨을 깊게 토해내 본다. 조금 무더져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잘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면 충분하다고 가만히 토닥여 주고 싶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고, 가끔은 그 바람에 온전히 나를 맡긴 채 이제는 바람이 전하는 진짜 소리를 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얼마 후 우연한 기회에 공모전을 보게 되었다.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내 글에 대해 확신조차 없을 때였다. 공모전 글을 쓰는 내내 처음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을 알았다.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은 것 같았다. 그 순간 예전과는 다르게 욕심을 비워내고 덜어내어 보니 훨씬 더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과 아이들은 나보다 더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다. 부족한 글, 써야 할 이유를 찾게 해준 심사 위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자카르타 국회 앞 ‘계단 없는 육교’, 시위 차단 의혹과 사실관계

주정부 “노후 시설 전면 철거 절차, 고속도로 협의 중 계단 우선 해체”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 앞 가톨 수브로토 대로변에서 계단이 모두 철거된 채 상판만 공중에 남겨진 보도육교가 오가는 통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사당 일대는 주요 정치·노동 현안을 둘러싼 대규모 규탄 집회가 빈번히 열리는 장소다. 특히 8월 들어 국회 주변에서 대형 집회가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계단 철거가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당국이 시위대의 육교 점거와 도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단부터 잘라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 2019년 대규모 시위 당시 인근 슬리피 지역 육교가 방화 피해를 입는 등 주요 육교가 시위 거점으로 활용되었던 전례가 있어 이러한 시각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자카르타 주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위 통제 목적이 아닌 인프라 철거 절차 진행 중 발생한 공정상 시차로 나타났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계단 철거 후 논란이 커지자 8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시설을 전면 철거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버스 정류장

이전으로 보행 동선에서 벗어나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시설 해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상판을 남겨둔 채 계단만 8월 초에 먼저 철거된 이유는 육교 본체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자카르타 도심 순환고속도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도로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고속도로 상공의 대형 구조물을 해체하려면 중앙 공공사업부 및 인도네시아 도로공사의 기술 검토와 작업 승인, 심야 시간대 전면 교통 통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관리 당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상 계단부터 먼저 해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통제 일정 조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상판만 도로 위에 남게 되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중앙부처와의 행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야 시간대 도로를 통제하고 잔여 상판을 완전히 철거할 방침이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정국 상황에 따라 집회가 이어질 수 있고 향후 야간 철거 작업에 따른 도로 통제도 예상되는 만큼, 해당 구간을 오가는 한인동포들의 교통 정보 확인과 안전 유의가 요구된다.

한인뉴스 편집국

수라바야, “평화기원의 탑”을 찾아서

글·사진: 김주명 | 고려독립청년당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화산이 터졌네요!”

9월 5일 새벽, 카톡이 울렸다. 한국에서 보내 온 메시지였다. 잠결에 얼른 확인하고서는 ‘아, 많은 화산 중 하나가 또 폭발했구나’ 싶었다. 그때 나는 「종합예술제」를 준비하느라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었다.

별일 없던 그날 오후, 이번에는 롬복의 아내에게서 급한 문자가 왔다. 조카가 수라바야에 있는 <항공기술대학>에 입학하는데, 입학식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시골 사정이 갑자기 수라바야로 갈 여건이 못 되니, 내가 대신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참석하겠다고 하고서 항공편을 알아보니, 아뿔싸! 공항이 문을 닫았다. 기차 편은 가능할까? 역시나 빛의 속도로 매진되어 버렸다. 왜 하필 이때 느닷없이 화산이 터졌을까?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버스뿐이었다. 12시간의 여정으로 수라바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전 7시에 시작한 입학식은 두어 시간 만에 마쳤다. 자카르타로 돌아가려고 저녁 기차를 미리 예매해 두었는데, 나홀 만에 하늘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렇다고 항공편으로 바꾸기도 애매해서 애초 마음먹은 기차편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고서 구글 지도로 수라바야 ‘평화기원의 탑’을 검색해 보았다.

2022년, 고(故) 이태복 선생의 소설 『암바라와』가 출간되고 나서 해마다 「태평양전쟁 유족회」로 구성된 참배객이 암바라와를 다녀갔다. 먼저 수라바야에 들러 “평화기원의 탑”을 참배하고, 중부자바 암바라와까지 와서 암바라와 성(城) 일대와 위안소 유적지 등을 돌아보고 귀국했다. 그때 수라바야에도 추모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찾아봐야지 하던 마음도 잠시 세상사에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지난해 이태복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중부자바 한인회와 함께 추진하던 암바라와 ‘태평양전쟁희생자추모비’ 건립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유인즉, 설치 예정지 관할 지역 군부대로부터 비문 내용 중 ‘전쟁’, ‘피해’, ‘추모’ 등의 문구를 빼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추모비 건립을 불허하겠다는 속내였을까.

수라바야 평화의 탑을 좀 더 찾아보았다. 구글에 등록된 이름은 한국공원, “Korean Friendship Park”였다. 정말 공원일까? 막상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실상은 교통섬이었다. 왕복 6차로의 유턴 구간에서 중앙선 역할을 하는 어중간한 땅에 “평화기원의 탑”이 놓여 있었다. 외국에서 땅 한 자리 내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역사적인 장소에 자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추모탑의 시작은 이러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會)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발족한 독립기구이다. 2009년 말 임시국회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에 따라, 2010년 4월 24일로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69명이 발의하여 제정되었고, 2004년 11월 위원회가 발족했다. 2005년 3월에 피해조사 업무를 개시하였다. 김용봉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키백과 발췌>



추모비 전경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피해가 컸던 지역에 추모탑을 세웠다고 한다. 탑의 전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었다.

이 탑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제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고자 세워졌습니다.

이에 한국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라바야시(시장 Bam-bang D.H) 당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한인회에서 공동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추모비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 인도네시아 공화국 수라바야시 시장 밤방 데위하르뜨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위원장 정선태
- 주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김호영
- 재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한인회 회장 임택선

2010년 5월 8일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시나를 벗어나자 이내 사방은 칙칙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옆으로는 매끈하게 뻗은 고속도로의 가로등이 마치 경주라도 하듯 스쳐 지나가고, 멀리 동

부자바의 산자락이 어둠의 스크림을 짠 채 버티고 서 있었다. 한참 지났을까, 잠결에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우리는 왜 국가유공자 집안이야?”

“갑자기? 음……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셔서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유족 가문은 아닌데, 이야기가 좀 길어도 괜찮겠니?”

나의 선친(先親)께서는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인 1919년,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나셨다. 아버지가 청년이 되던 1940년대에는 일제의 총동원령이 극에 달했다. 이를 피해 선친께서는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만주로 떠나셨고, 해방을 맞이하고자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긴장한 20대 청년의 기개를 눈여겨본 마을 어른들은 아버지를 경찰로 추천했고, 화양 파출소장을 맡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낙동강 다부동까지 전세가 밀리자, 다급해진 국군은 경찰 병력을 예하 부대로 편성해 다부동 전투에 투입했다. 자연스레 아버지도 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셨다. 낙동강 철교가 끊어지던 날, 아버지는 오른팔이 부러지고 허벅지에는 관통상까지 입으셨다.

후방으로 이송되어 오랜 치료 끝에 회복은 하셨

지만, 멍에처럼 오른팔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더 이상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고, 훗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묵묵히 가족을 지키시던 아버지는 만 60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나 역시 아버지가 사셨던 삶의 정점에 다다랐다. 만주 별판 대신 자바의 평원을 이리저리 오가며 달린다. 머릿속에는 암바라와 추모비를 꿈꾸다 영면에 드신 이태복 선생과 그의 저작 『소설 암바라와』,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자 헌신하는 중부자바 한인회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돌 하나를 없다는 세상 법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수많은 한국인이 흘린 피와 얼룩진 역사의 비극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을 쌓고 탑을 올린다. ‘돌이 탑이 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 무심하고도 서글픈 자문은 평화의 무력함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 존재의 한계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과거 일제강점기 타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 간 이들의 넋이 서린 공간, 그리고 오늘날 또다시 갈등과 반목으로 군대를 파견해야 하는 현실. 시공간을 초월해 반복되는 이 비극은 인류가 과연 전쟁 없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종(種)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예고 없이 터져 나오는 화산의 분출처럼, 역사 또한 언제나 거친 폭력성과 불안의 품은 채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작은 돌을 하나하나 포개어 올리는 인간의 몸짓은 폭력이라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평화를 염원하겠다는 결연한 징표다.

수라바야를 잠시 스쳐 지나며, 언젠가 암바라와 평원에 우뚝 설 추모비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 그것은 덧없는 환상이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잊지 않겠다는 정직한 다짐이자 미래의 폭력을 거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탑을 쌓아 올리는 그 찰나마다 인간의 잔혹함을 경계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돌 하나하나에 깊이 새길 것이다. 비록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멈추지는 못할지라도, 평원에 굳건히 선 추모탑은 묵묵히 우리를 향해 끝없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추모비 후면



지난 호에 이어

약초꾼 이야기

6화 - 황금(1)



설악산이 세 번의 옷을 갈아입었다. 아버지와 나는 설악산에 남았고, 금이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연이 또한 유학을 목표로 학교를 서울로 옮겼다. 형제들이 하나둘 산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비로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온전히 내 몫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두려움보다 감사함이 컸던 시간들이었다. 자연이 내어 준 것들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가족을 지켜 온 지난날들이 보람차다. 나는 이 산과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셨듯 묵묵히, 자연을 벗 삼아 약초꾼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한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 집은 아래 동네 끝머리에서 오르막길로 50미터 남짓 꼬불길을 올라와야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구도 좁고 사람들이 왕래한 흔적도 없어서, 외부 사람들에게는 장막으로 가려놓은 집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수레 하나 간신히 통과할 폭인데 눈이라도 쌓이면 며칠씩 고립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했다.

어려서부터 부엌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이끌려 한참을 멎더니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다. 그 장면들이 머리에 각인되어서인지, 성인이 된 지금도 요리하는 법과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깊다. 할머니는 산채비빔밥을 준비하느라 그림자가 멈출 새 없이 부엌을 누비셨다. 돼지감자, 은이버섯, 목이버섯, 우영, 느릅나무순, 참취를 삶아 밀간을 하고 밥과 고추장,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채비빔밥이 완성된다. 계란은 언제나 아버지와 형의 몫이지만, 계란이 없어도 그저 감지덕지할 만큼 맛있는 밥상이었다.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거라. 우리 금이가 산채비빔밥을 이리 좋아하니 할미가 원없이 만들어주마.”

아래 동네 사람들은 주로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같은 밭작물을 경작했다. 수확물로 지어 먹는 감자밥, 강냉이밥, 고구마밥에 메밀국수, 도토리국수, 감자수제비는 최고의 별미였다. 무를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인 삼숙이국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시원하고 구수한 보양식이었다.

장날이면 아버지는 쌀과 밀가루, 그리고 오징어, 명태, 미역, 가자미 같은 해산물들을 사 오셨다. 할머니는 젓갈류를 유독 좋아하셨는데, 명란젓, 서거리젓(명태 아가미로 만든 젓), 창란젓, 바다게젓 상이 오르는 날이면 온 식구가 밥 두 그릇을 푹딱 비워내곤 했다. 그래서 할머니 생신상엔 언제나 젓갈 반찬이 빠지지 않았다.



서상영 | 미르한의원 원장



백이형은 메밀국수나 감자수제비보다 옥수수 엿을 가장 좋아했다. 밥이든 떡이든 감자든 모조리 엿에 찍어 먹는 별난 취향이였다. 엄마는 송구떡, 취떡, 찰떡과 여러 종류의 버섯 부침개를 즐겼고, 그중에서도 찐 찰옥수수를 가장 아꼈다. 할머니 생전에 가끔 찰옥수수를 먹다 흐느끼는 엄마를 보고 “왜 그러시냐” 물으면, 엄마는 항상 “너무 맛있어서요” 하고 대답했다.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아련한 그리움이 서려 있는 표정이였다.

내 기억은 5살 무렵부터 시작된다. 엄마보다 할머니를 쫓쫓 따라다니는 게 그저 재미있었다. 할머니 곁에 가면 꿀에 재운 대추를 하나씩 얻어먹었고, 요리할 때는 요리법을, 약초를 손질할 때는 약초의 이름을 배웠다. 그 모든 게 살아 있는 체험학습이였다. 내성적인 내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던 할머니는, 8살 무렵 내 대답을 들으시더니 약초에 관해서는 이미 천자문 수준을 떼었다고 웃으셨다.

“할미 말을 꼭 기억하거라. 병은 약초가 낫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낫게 하는 것이란다.”

그때는 그 깊은 뜻을 알 리 없었지만 “네” 하고 힘차게 대답했었다.

내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할머니의 기력이 쇠약해진 것을 보고 장터에서 염소를 사 오셨다. 가마솥에 잣, 찹쌀, 두릅나무, 생강, 마늘, 대추, 당귀, 천궁, 구기자를 가득 넣고 반나절을 푹 끓여내자 온 집안에 진한 향이 감돌았다. 덕분에 처음 맛본 염소고기는 질기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자카르타에서 떠나는 반둥 골프 1박 2일

- Parahyangan & Jatinangor 라운드 후기



손상현 | '자카르타의 아침' 블로거

자카르타 골프와 반둥 골프의 차이

자카르타 골프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다. 가까운 도심 내 골프장이 많아서 코스 선택의 폭도 넓고, 주말 오전에 조금 일찍 나서면 만나질 일정으로 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클럽하우스 음식도 대체로 만족스럽다. 라운드 후 한식 메뉴 등 가볍게 식사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회원권을 가진 골프장 멤버가 아니라면 주말 오전 그린피가 비싸며, 좋은 골프장일수록 부킹이 어렵고 단체 행사나 플레이어가 많은 날에는 경기 운영이 지체되기도 한다.

반면 반둥 골프장의 장점은 확실하다.

첫째, **날씨가 시원해** 라운드 중 땀이 거의 안 난다. 둘째, 산과 계곡, 고지대 특유의 **탁 트인 전망!** 셋째, 오후 티업은 **여유 있는 라운드**가 가능하다. 자카르타에서 거리가 멀고, 당일 일정으로 다녀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숙소 위치로 전망이 좋은 램방(Lembang) 지역을 고려한다면 다음 날 오전 반둥 시내 차량 정체를 감수해야 한다. 가능하면 골프장 인근에 숙소를 잡는 것이 좋다. 반둥의 골프장도 주말 오전 그린피는 비싸지만 오후 티업은 부킹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다. 골프 코스 관리가 자카르타의 골프장보다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시원한 날씨와 탁 트인 풍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Parahyangan은 코스 완성도와 도전적인 레이아웃이 인상적이고, Jatinangor는 숙박과 라운드를 함께 즐기기 좋은 리조트형 골프장이다. 자카르타에서 당일로 다녀오기에는 조금 빠듯하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잡으면 충분히 만족도가 높다.

1일 차: 자카르타에서 Parahyangan으로

아침 9시 30분쯤 자카르타에서 출발했다. 금요일 아침 반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붐비지 않았다. 반둥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점차 느려졌고, 2차로로 좁아진 길은 화물차들의 난폭운전과 갓길로 추월하는 차량들이 많아졌다. 교통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를 한 번 들렀다가 Parahyangan Golf Bandung에 도착하니 12시 반경이 되었다.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도 쉴 여유 없이 라운드를 시작하다 보니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특히 직접 운전을 해보니 반둥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았다. 반둥으로 접어들면서 안전운전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글 지도에서 보여주는 소요 시간보다 약 20~30분의 차이가 있었다.

웅장하게 지어진 클럽하우스와 레스토랑에서 보이는 탁 트인 뷰, 친절함 직원들, 그리고 라운드를 해보니 과연 인도네시아에서도 톱 수준의 코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스 레이아웃, 잔디 상태, 관리 수준, 전체적인 풍경까지 모두 인상적이었다. 물론 단순히



첫인상부터 좋은 Parahyangan Golf Bandung

풍경만 좋은 골프장이 아니었다. 제대로 설계된 어려운 골프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Hole 2, par 5: 비교적 전장이 짧지만 맞바람, 오르막이 헨디캡이다.

Out course는 대체로 전장이 비교적 길고, 바람도 많이 불었다. 페어웨이가 넓어 보이는 홀도 막상 티박스에 서면 공략 지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홀마다 자연 지형을 잘 살려 헨디캡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컨드 샷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산과 계곡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면 자칫 볼이 방향을 잃을 수 있다. 방향성과 거리가 모두 좋아야 한다. 특히 4번 홀 티잉그라운드에서 올라서면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In course는 전장은 짧지만 까다로운 레이아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아름답고 멋있지만 쉽지 않은 코스'다. 개인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 라운드인데, 기대했던 스코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골프장 레스토랑 음식은 자카르타 골프장보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한국 스타일 메뉴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입맛에 잘 맞지 않았다. 김치에 고추장을 사용한 듯한 맛은 조금 어색했다. 코스 수준이 워낙 좋아서 식사에 대한 기대도 높았던 탓인지,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캐디들은 친절했지만 골프 코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Hole 4, par 4_HCP 1, 그림 같은 골프장 풍경

그래도 Parahyangan은 잘 설계된 코스 하나만으로 다시 가보고 싶은 골프장이다. 반둥 골프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면 반둥까지 올 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골프 코스이다.



Hole 11 Par 4, 티샷이 떨어지는 페어웨이의 절반이 벙커다.

2일 차: Jatinangor National Golf & Resort

다음 라운드는 Jatinangor National Golf & Resort였다. 이곳도 이번이 세 번째 라운드였다. Parahyangan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곳이고, 반둥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이다. 토요일 오후 티업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았다. 그래서인지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어느 골프장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Jatinangor의 가장 큰 장점은 리조트형 골프장이라는 점이다. 호텔과 코티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Stay & Play 패키지가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과 라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가기에는 꽤 좋은 선택지이다.

클럽하우스 식당도 꽤 만족스러웠다. Parahyangan보다 메뉴가 다양했고, 한국적인 음식의 맛과 퀄리티도 좋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이용한



좌)2021년도 Hotel&Club house. 이때는 Giri Gahana Jatinangor Golf & resort였음
우)2026 현재. 호텔 앞에 수영장이 만들어졌음



좌)2021.12 Hole 18, par 5 자띠낭오르 골프장의 인상적인 풍경
우)보기만 해도 정성과 손맛이 느껴지는 메뉴

한국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교민이나 주재원에게는 이런 부분이 은근히 중요하다. 라운드 후 음식이 입에 맞으면 골프장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코스는 재미있고 까다롭다. 산비탈에 만들어진 골프장이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고, 착시현상도 있다. 그래서 거리감을 잡기도 쉽지 않다. 호텔 뒤로 보이는 산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경사가 많고, 오후에는 바람이 코스를 휘감고 분다.

그린도 꽤 까다롭다. Parahyangan처럼 라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분명히 왼쪽으로 흐를 것 같았는데 막상 공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산악 코스 특유의 미묘한 경사와 착시가 있어서, 퍼팅 때는 캐디의 조언을 잘 듣는 것이 좋다.

Jatinangor는 완전히 새롭고 화려한 골프장은 아니다. 일부 구간은 관리 상태가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즐겁게 라운드할 수 있는 코스다. 무엇보다 시원한 날씨, 편안한

분위기, 친절함 덕분에 아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숙박을 하면 밤에는 기온이 꽤 쌀쌀하다. 자카르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전기장판을 가져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그 쌀쌀함이 오히려 좋다.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아침 공기가 상쾌하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자카르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이른 아침의 상쾌함이 있다.

호텔 앞에 수영장이 새로 만들어졌다. 시원한 그늘에서 멀리 반동 시내까지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배경으로 즐겁게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Jatinangor에서 만난 사람들

이번 Jatinangor 라운드에서는 비즈니스를 함께하게 된 분들도 만났다. 골프에 진심인 가족 세 분과 함께 라운드를 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다. 좋은 샷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아쉬운 샷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긴 탄성이 나왔다. 거의 매주 가족들이 함께 골프를 치며 가볍게 내기를 한다고 했다. 실력보다 골프를 즐기는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김밥과 김치를 준비해 오셨는데, 정말 소풍 나온 기분이 들었다.

라운드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매달 한 번씩 Jatinangor에서 라운드를 하자는 제안도 받았다. 순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카르타에서 즐기는 골프도 좋지만, 가끔은 반동의 시원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았다.

Jatinangor는 그런 약속을 만들기 좋은 곳이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다.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까다로우며, 라운드 후에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 비즈니스 라운드에도 좋고,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일정에도 잘 어울린다.

이동 팁과 일정 추천

자카르타에서 반동 골프를 계획한다면 당일치기보다는 1박 2일을 추천한다. 아침에 출발해 Parahyangan에서 첫 라운드를 하고, Jatinangor에서 숙박한 뒤 다음 날 Jatinangor에서 라운드하는 일정이 좋다. 추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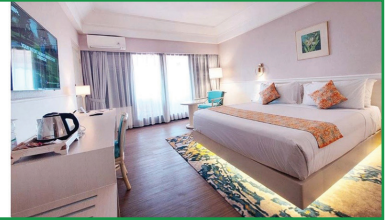
- 오전 8시: 자카르타 출발
- 점심 무렵: Parahyangan 도착
- 오후: 라운드
- 라운드 후: Jatinangor 숙소 이동 (약 1시간 소요)

Stay & Play

- Weekdays Single Rp 1.715.000
- Weekdays Sharing Rp 1.350.000
- Weekend Single Rp 2.615.000
- Weekend Sharing Rp 2.115.000

Includes :

- One Night Stay at Superior / Super Deluxe Room
- Breakfast
- 1 Round of 18 Hole Golf
- Free Entry to The JansPark



Parahyangan Golf Rates

Weekdays

am - pm Rp 1.018.000,-

Saturday

am Rp 2.408.000,-

pm Rp 1.608.000,-

Sunday & Public Holiday

am Rp 2.148.000,-

pm Rp 1.408.000,-

Price Includes: Green Fee, Golf Cart (shared) & Caddy Fee*
For golf play at Parahyangan Golf, a minimum of 2 players is required on weekdays and 3 players on weekends

Parahyangan Golf Rates 요금표

● 2일 차

- 아침: Jatinangor 라운드
- 클럽하우스 식사
- 오후: 자카르타 복귀

차량 이동이 부담된다면 Halim역에서 Whoosh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약 45~50분이 소요된다. 반동 동쪽 테갈루아르역 (Stasiun Tegalluar)을 이용하면 Jatinangor와 가깝고, 호텔 셔틀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Whoosh 고속열차 요금은 예약일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로 2026년 8월 검색



Jatinangor의 아침 풍경

기준, Halim-Bandung 구간은 First Class 약 Rp600,000, Business 약 Rp450,000 수준이며, Premium Economy는 시간대에 따라 변동된다. 정확한 요금은 출발 전 Whoosh 공식 예매 사이트나 예약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숙소 위치다. 반둥 시내를 밤낮으로 차량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시내 중심 숙소보다는 골프장 또는 인근 숙소가 훨씬 낫다. 반둥에 와서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여행 기분이 반감된다. 골프장과 가까운 곳에 머물러야 1박 2일 일정이 편하다. 우리는 램방 지역에서 1박을 했는데, 첫날 라운드 후 호텔로 이동하는 시간과 다음 날 아침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다.

Parahyangan과 Jatinangor, 어떻게 다를까?

Parahyangan은 코스 완성도와 탁 트인 자연 풍경이 강점이다. 전장이 길고, 바람도 있으며, 계곡을 건너는 다이내믹한 코스 레이아웃이 도전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톱 수준의 골프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Parahyangan은 충분히 가볼 만하다. 좋은 스코어를 기대하기보다 좋은 코스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만족도가 높다. Parahyangan 골프장을 설계한 JMP 골프 디자인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 밥 무어는 자카르타의 Royale Jakarta Golf Club도 설계했다.

Parahyangan에서 라운드하다 보면 이 코스가 단순히 풍경 좋은 곳에 페어웨이를 얹어 놓은 골프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JMP Golf Design Group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연 지형과 골프의 전략성을 함께 살리려는 의도가 코스 곳곳에 엿보인다. 계곡, 언덕, 바람, 벙커 위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매 홀의 공략 방법을 새롭게 만든다.

평일 2명 이상, 주말 3명 이상이면 플레이가 가능하다. 평일에는 시니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Jatinangor는 리조트형 골프 여행에 더 잘 맞는다. 날씨가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며, 식사와 숙박까지 연결하기 좋다. Stay & Play 패키지를 활용하면 1박 2일 골프 여행의 부담이 줄어든다. 코스는 재미있고 까다롭지만, 분위기는 편안하다.

Parahyangan이 “도전하고 싶은 코스” 라면, Jatinangor는 “다시 쉬러 가고 싶은 코스” 다.

골프만 치고 오는 1박 2일이 아니라, 잠시 자카르타의 더위와 복잡함을 벗어나는 짧은 여행이었다. 공은 마음대로 가지 않아도 반둥의 날씨와 풍경은 확실히 내 편이다. 다음에도 무리한 당일치기보다는 잘 준비된 1박 2일로 다녀올 생각이다. Parahyangan에서 도전적인 라운드를 즐기고, Jatinangor에서 편안하게 쉬며 다음 날 아침 신선한 공기 속에서 다시 라운드하는 일정.

자카르타 골퍼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주말 코스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자카르타 골프장의 더위가 부담스러운 분

주말에 골프와 짧은 여행을 함께 즐기고 싶은 분

비즈니스 라운드와 가족 휴식을 함께 계획하는 분

Parahyangan처럼 도전적인 코스와 Jatinangor처럼 편안한 리조트형 코스를 함께 경험해 보고 싶은 분

출처: joglo.tistory.com/397

자카르타의 아침:티스토리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 STIK-PTIK 51기, 태권도로 ‘강한 경찰’ 만든다

— 경찰 간부 281명 태권도 수련… 윤유중 사범, 27년째 지도

인도네시아 경찰대학교(STIK-PTIK) 태권도지도실

인도네시아 국립경찰(Polri) 산하 경찰대학교 STIK-PTIK 51기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경찰 간부로 거듭난다.

지난 3일 열린 51기 태권도 도복 전달식에서는 윤유중 태권도 사범이 에코 수다르토(Eko Sudarto) 학장에게 태권도 도복과 명예 단증을 전달하며 태권도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STIK-PTIK은 1946년 6월 17일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경찰 고등교육기관으로, 경찰 행정·치안 관리·범죄학 등 경찰학 전반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전문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51기에서는 S2(석사) 과정 281명과 S1(학사) 과정 95명이 태권도 수련에 참여한다. 특히 여성 경찰(Polwan) 35명이 포함되는 등 태권도 교육 참여 인원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 간부 교육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9월 3일부터 1년간 태권도를 수련하며 기본 동작과 체력 훈련은 물론, 절제·인내·자신감·리더십 등 경찰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신적 역량도 함께 배우게 된다.

윤유중 사범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STIK-PTIK에서 태권도를 지도해 오며 수많은 경찰 간부 제자들을 배출해 왔다.

윤 사범은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무

도가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을 배우는 교육”이라며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 간부들이 더욱 강인하고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TIK-PTIK에서 이어지고 있는 태권도 교육은 한국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를 인도네시아 경찰 교육 현장에 접목해 양국 간 스포츠·교육 교류를 확대하는 의미도 더하고 있다.



30년의 인도네시아 삶을 되돌아보며

김석주 | 코원재인니한글학교 교감 제공

1995년 9월 30일, 나는 남편을 따라 인도네시아에 처음 발을 디뎠다. 첫아이는 세 살이었고,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남편의 근무지가 있던 짜깁백에서 우리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시작되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생활환경은 열악했고, 한국과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언제 어디서든 통화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국에 전화 한 통을 하려면 ‘와르텔(Wartel)’이라는 곳을 찾아가야 했다. 전화 한 번 하기 위해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야 했던 시절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그리웠는지 모른다. 한국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가장 실감했던 순간도 어찌면 그때였던 것 같다. 지금은 휴대전화 화면만 열면 한국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당시의 한국은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마음에서도 참 멀리 있는 나라처럼 느껴졌다.

새벽에 시작해 어둠 속에 돌아오던 하루

첫아이의 유치원 생활도 쉽지 않았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는 매일 Cikampek에서 Taman mini에 있는 유치원에 동행해야 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직 밖이 깜깜할 때 아침식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아이와 함께 긴 거리를 이동해 유치원에 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밖은 깜깜해져 있었다. 그렇게 매일 고속도로를 오갔다. 당시 고속도로는 지금처럼 차선이 많지 않았다.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잦았다. 오가는 길에 사고 현장을 보는 것이 드문 일

이 아니었다. 첫아이의 유치원 통학을 위해 갓난아기인 둘째까지 데리고 매일 그 길을 오가야 했다. 어린 두 아이와 함께 매일 장거리를 다녀야 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지금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가끔 그 시절이 떠오른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선이 많아지고 도로도 넓어졌다. 자동차가 가득한 지금의 고속도로를 바라보면서 ‘이 길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도로의 변화는 내가 지나온 30년의 세월을 보여 주는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 병원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기억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병원’을 이야기할 것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조산을 하게 되었다. 임신 8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의료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시절에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를 낳아야 했던 두려움은 지금도 잊기 어렵다. 다행히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있었다. 작고 어린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그 인큐베이터가 있었기에 아이는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감사한 일이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시골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것조차 큰일이었다. 당시 내가 경험한 병원 환경은 한국과 너무 달랐다. 위생 상태나 시설도 열악했고, 병원을 이용하는 문화 자체도 낮설었다. 환자 한 명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온 가족이 함께 병원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무척 놀랐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의 병원 문화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때는 그런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때로는 서럽기도 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야 할 때면 한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외국에서 사는 어려움은 언어나 음식이 불편한 것만이 아니었다. 가족의 건강과 아이의 생명이 걸린 순간,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곁에 없다는 불안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인도네시아의 의료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현대적인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도 많아졌고 의료 서비스 역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지금의 병원들을 볼 때면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을 찾아다니던 젊은 날의 내가 떠오른다.

찌감백에서 찌까랑으로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우리 가족은 찌까랑으로 이사했다. 찌까랑에서의 생활은 찌감백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졌다.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나에게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낯설기만 했던 인도네시아가 서서히 ‘내가 살아가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던 것 같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나에게 새로운 인연도 찾아왔다.

한글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나누어 보자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학교와의 인연은 내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부분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전하면서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에 살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말과 우리글이 외국에서 살아보니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해외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이어지고, 자신의 뿌리와 이어지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 역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점점 더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

한글학교에서 시작한 교육과의 인연은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졌다. 현재 나는 한글학교에서 교사 겸 교감으로 또 한국문화원에서 세종학당 교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1995년, 세 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 낯선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던 평범한 주부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한글학교 교감으로, 세종학당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변화도 실감한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던 시절에는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K-드라마와 K-음악, K-음식과 K-화장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한마디씩 말할 수 있게 되고,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면 큰 보람

을 느낀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많은 것들을 한국어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는 버스와 MRT를 타고 자카르타로

요즘 나는 자카르타에 수업을 하러 갈 때 버스를 이용한다. 자카르타 시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MRT도 타고 버스도 이용한다. 인도네시아에 오래 거주한 한국인 주부들 중에는 고젝이나 그랩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버스나 MRT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직접 이용해 보면 생각보다 매우 안전하고 깨끗하다. 특히 자카르타의 MRT를 타고 이동할 때면 내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던 1995년을 떠올리게 된다.

한국에 전화 한 통을 하기 위해 와르텔을 찾아가야 했고, 차선도 많지 않은 고속도로를 매일 오가며 사고 현장을 마주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깨끗

한 MRT와 버스를 타고 도심을 오가며 한국어를 가르치려 다닌다.

나는 그 변화 속에서 30년을 살았다. 그래서 나에게 인도네시아의 발전은 뉴스나 통계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걸어온 삶 속에 있다. 좁았던 고속도로가 넓어졌고, 열악했던 병원은 현대적인 병원으로 바뀌었다. 전화 한 통 하기 힘들었던 시절에서 손안의 휴대전화로 한국의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대중교통도 몰라보게 발전했다. 도시가 변하는 동안 나도 변했다.

낮선 나라에서 또 하나의 삶의 터전으로

처음부터 인도네시아가 편했던 것은 아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생활 방식도 달랐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 온다. 하지만 30년을 살고 보니 다른 문화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만의 가족애와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쉽게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역시 이곳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낮선 외국’이 아니었다. 한국에 가면 인도네시아가 생각나고,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한국이 그리웠다. 어쩌면 30년을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 개의 고향을 품고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30년의 길 끝에서 다시 바라보는 앞날

1995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한 장의 사진처럼 펼쳐 놓을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참 많은 모습의 내가 있을 것이다.

세 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낮선 땅에 도착한 젊은 엄마가 있다. 임신 8개월 만에 태어난 작은 아이를 인큐베이터 너머로 바라보며 마음 졸이던 엄마도 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첫아이의 유치원 통학을 위해 새벽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서고, 다시 어두워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내가 있다. 이제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우리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교원으로서의 나도 있다. 이





모든 모습이 나의 30년이다. 생각해 보면 나는 인도네시아가 변해 가는 모습을 지켜본 것만이 아니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나도 변하고 성장했다. 젊은 날에는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미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인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강해졌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다. 누군가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30년 전의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될 줄 몰랐다. 더구나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이어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 있기도 한다.

나에게 인도네시아가 그랬다. 낯선 땅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내 청춘과 중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되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진 곳이며, 내가 한국어 교원으로 성장한 곳이기도 하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힘들고 서러웠던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감사’이다. 나와 가족

이 무사히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 것에도 감사한다. 앞으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받은 것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계속하고 싶다.

1995년, 낯선 나라를 향해 내디뎠던 한 걸음이 어느덧 30년이라는 긴 길이 되었다.

그 길 위에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으며, 두려움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3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함께 내 인생의 30년을 살아왔다.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의 변화: PMK 55/2026과 'Pihak Lain'의 제도화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kimjhoon@bngconsulting.co.kr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026년 8월 24일 시행한 재무부령 PMK No. 55/2026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Pihak Lain(세무컨설턴트 및 가족을 제외한 기타 세무대리인)을 공식적인 자격·등록·감독 체계로 편입시켰다. 앞서 시행된 PMK 44/2026이 대리인 자격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PMK 55/2026은 Pihak Lain의 자격 요건, 등록 절차, 업무 범위 및 감독 체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1. 핵심 요건: SKK와 SKT의 등급 체계

Pihak Lain으로 활동하려면 역량시험을 거쳐 역량증명서인 SKK(Surat Keterangan Kompetensi)를 취득하고, 국세청(DJP)으로부터 등록증명서인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를 발급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 일반 개인 납세자 대상 (조세조약(P3B) 체결국 거주자 제외)

B등급: 일반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대상 (외국인투자법인(PMA), 고정사업장(BUT), 조세조약 체결국 개인·법인 제외)

C등급: 제한 없이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대리 가능
한국계 기업의 대다수는 PMA 법인이고 한-인니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실무적으로 한국계 기업을 대리하려면 C등급 SKT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3년 유효기간과 보수시험

SKT와 SKK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자격을 갱신하려면 만료 전 보수시험(ujian penyegaran)에 합격해야 한다. 한 번의 취득으로 영구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전문성 검증이 요구된다.

3. 실무상 변화: Brevet의 한계와 업무 분리

Brevet 효력의 변화: 과거에는 Brevet 자격증이나 사내 직원 신분만으로 외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공식 SKT가 없으면 법적 의미의 대리인(Kuasa Wajib Pajak)으로 활동할 수 없다. 대리 행위와 단순 보조의 구분: 고객을 공식 대리하는 인력은 반드시 SKT를 갖추어야 한다. 반면 세무서류의 단순 제출·수령과 같은 보조 업무는 지정서(Surat Penunjukan)를 통해 일반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세무법인과 기업은 공식 대리 인력과 내부 보조 인력을 명확히 구분해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4. 국세청의 직접 감독 및 행정제재

DJP는 Pihak Lain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단계적 절차 없이 곧바로 SKT 정지(pembekuan) 또는 SKT 취소(pencabutan)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Pihak Lain을 단순 보조자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는 '조세 중개인(tax intermediary)'으로 규정한 것은 의도다. Coretax 도입 등 세무 행정의 전산화와 맞물려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책임 요건도 대폭 강화되었다. 현지 진출 기업과 세무 전문가는 이를 단순 자격증 제도의 개편이 아닌, 공식 세무대리 권한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관련 규정

- PMK No. 55 Tahun 2026 (세무컨설턴트 및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기타인에 관한 규정)
- PMK No. 44 Tahun 2026 (세무 분야 대리인 자격 및 권리·의무 이행 절차 규정)



제슬린의 12가지 한국 이야기

낮에는 콘텐츠 작가, 밤에는 한국 학생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

제슬린 | 콘텐츠 마케터 · 이벤트 기획자

저에게는 조금 특이한 부업이 있어요. 낮에는 싱가포르 회사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에이전시에서 정규직 콘텐츠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6명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성인 1명, 초등학교생 3명, 미취학 아동 2명이었습니다. 지금은 4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학생은 학생 A입니다. 처음 가르쳤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생 A는 영어를 정말 잘해서 수업할 때 한국어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영어 글쓰기나 시험 대비, 토론 준비를 함께 합니다. 학생 A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이해도 빨라서 가르치는 시간이 늘 즐겁습니다!

나머지 3명의 학생은 한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아이 2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로 온 가족입니다. 어머니는 보통 영어 회화 연습을 하시고,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알파벳이나 쉬운 단어를 배웁니다. 이 학생들은 아직 영어가 서툴러서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훨씬 까다롭긴 하지만, 동시에 제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제가 이런 부업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취미 삼아 가볍게 배웠지만,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업을 할 수 있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뜻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탕에랑의 여러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Rumah Belajar Aku Anak Cerdas(나는 똑똑한 아이 공부방)’ 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료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수학, 영어, 인도네시아어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 줍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형편이 어려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학습 수준입니다. 나이는 같아도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두 환경의 학생들을 모두 경험해 본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갈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자주 찾아가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제 말에도 귀를 잘 기울이고, 어떤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숙제를 더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부업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단 한 분에게라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울림을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7)

지난 호에 이어

12. 구금(Penahanan)

12.1 구금 권한

- 수사관: 수사 목적으로 구금 가능.
- 부수사관: 수사관의 명령에 따라 구금 가능.
- 일반공무원수사관 · 특정수사관: 경찰 수사관의 명령 없이 구금 불가.
- 검찰청 · 부패척결위원회 (KPK) · 국군 해군 수
- 사관: 관련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금 가능.
- 검사: 기소를 위해 구금 또는 구금 연장 가능.
- 판사: 재판을 위해 자신의 결정으로 구금 가능.

12.2 구금 대상 및 요건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 그 미수 · 공범에 대해서는 구금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별도로 정한 특정 범죄도 구금 대상이다. 구금에는 구금명령 또는 판사의 결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피의자 · 피고인의 신원
- 구금 사유
- 혐의 또는 기소된 범죄의 개요
- 구금 장소
- 구금명령 또는 결정문 사본은 구금 후 1일 이내에 가족 · 보호자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며, 군인의 경우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도 전달한다.

12.3 구금의 구체적 사유

2개 이상의 유효한 증거가 있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금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관의 소환을 2회 연속 불응
- 신문에서 허위 진술
- 신문 방해
- 도주 시도
- 증거 인멸 · 파괴 시도
- 범죄 재범

- 본인의 동의 · 요청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판사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13. 구금기간

13.1 수사 단계

- 수사관: 최대 20일
- 검찰의 연장: 최대 40일
- 총 60일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13.2 기소 단계

- 검사: 최대 20일
- 지방법원장의 연장: 최대 30일
- 총 50일 후에는 석방해야 한다.

13.3 지방법원 재판

- 판사: 최대 30일
- 지방법원장 연장: 최대 60일
- 연장기간 종료 후 석방.

13.4 항소심

- 고등법원: 최대 30일
- 고등법원장 연장: 최대 60일
- 기간 종료 후 석방.

13.5 상고심

- 대법원: 최대 30일
- 대법원장 연장: 최대 60일
- 기간 종료 후 석방.

13.6 특별 연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의사 진단으로 확인된 중대한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9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
- 이 경우 최대 30일 + 추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결정권자는 절차 단계에 따라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장 · 대법원장으로 구분된다.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석방할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을 초과하여 구금할 수 없다.

14. 구금 연장에 대한 이의

피의자 · 피고인은 구금 연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수사 · 기소 단계 →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 · 항소심 단계 → 대법원장
- 상고심 단계 → 별도의 이의 제기 불가

구금 연장 권한은 각 단계의 담당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

15. 구금의 종류

구금은 크게 세 가지다.

15.1 구치시설 구금

국가가 운영하는 구치시설에 수용하는 방식.

해당 지역에 구치시설이 없으면 다른 교정시설 또는 관계 법집행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5.2 가택구금

피의자 ·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감독하는 방식으로, 수사 · 기소 ·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5.3 지역구금

피의자 · 피고인이 거주하는 도시 내에서 구금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석 ·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6. 구금기간의 형 감면

확정판결 전 구금기간은 최종 형벌에서 공제한다.

- 일반 구금: 구금기간 전부 공제
- 가택구금: 구금기간의 1/3 공제
- 지역구금: 구금기간의 1/5 공제

구금 형태는 수사기관 ·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으

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결정문은 피의자 · 피고인, 가족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한다.

불법 또는 무효인 구금이나 구금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 피고인은 지방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구금 정지(Suspension of Detention)

피의자 ·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관 · 검사 · 판사는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구금 정지를 허가할 수 있다.

구금 정지는 다음 조건으로 가능하다.

- 보증금(현금 보증)
- 개인 보증
- 보증금이나 개인 보증 없이 실시

보증인은 가족, 변호사 또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구금 정지 조건을 위반하면 수사관 · 검사 · 판사는 언제든지 구금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구금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법원이 검사의 이의를 받아들이면 결정 후 1일 이내 새로운 구금명령을 내려야 한다.

구금 정지 기간은 구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금 정지의 구체적인 요건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18. 입원 중인 피의자·피고인

수사 · 기소 · 재판 중 피의자 ·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보호 · 감독 상태에 둘 수 있다.

- 입원기간은 구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당 기간에도 수사관 · 검사 · 판사의 감독을 받는다.

피의자 · 피고인의 구금 요건,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2026 임원외비 남부명단

기준: 2026.1.1 ~ 2026.9.28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300,000,000
2	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150,000,000
3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0
4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50,000,000
5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100,000,000
6	명예고문	정필립	PT. KODECO ENERGY CO LTD	100,000,000
7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75,000,000
8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75,000,000
9	고문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75,000,000
10	고문	손한평	PT. DONGSAN HOLDINGS	75,000,000
11	고문	이강현	KIM & CHANG	75,000,000
12	고문	이기홍	PT. TIMUR SATRIA PERKASA	75,000,000
13	고문	이종윤	PT.SINAR MASANDA INDUESTRI	75,000,000
14	고문	이호덕	PT. ROYAL SUMATRA GROUP	75,000,000
15	수석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50,000,000
16	수석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150,000,000
17	수석부회장	이지완	PT. JIN YOUNG	150,000,000
18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75,000,000
19	부회장	고영렬	PT. HANA BANK INDONESIA	75,000,000
20	부회장	곽상혁	PT. KODECO ENERGY CO LTD	75,000,000
21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ARUNIA	75,000,000
22	부회장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75,000,000
23	부회장	김육찬	PT. GARUDA TWIN JAYA	75,000,000
24	부회장	김재홍	PT. DAE IN TECH INDONESIA	75,000,000
25	부회장	승범수	TSE GROUP	75,000,000
26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75,000,000
27	부회장	이동규	PT. DAEHAN GLOBAL	75,000,000
28	부회장	이승수	PT. SINYOUNG ABADI	75,000,000
29	부회장	이주환	PT. BANK NATIONALNOBU TBK	75,000,000
30	부회장	이해왕	PT. BANK KB BUKOPIN TBK	75,000,000
31	부회장	장윤하	PT. HARINDO	75,000,000
32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75,000,000
33	부회장	조명현	PT. SHINHAN BANK INDONESIA	75,000,000
34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75,000,000
35	부회장	최지훈	PT. TIGA WIJAYA SUKSES	75,000,000
36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75,000,000
37	자문위원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20,000,000
38	자문위원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0,000
39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20,000,000
40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20,000,000
41	자문위원	김재훈	PT. BNG AKUNTAN INDONESIA	20,000,000
42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20,000,000
43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20,000,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44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20,000,000
45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20,000,000
46	자문위원	안연진	PT. DEKO KOIN	20,000,000
47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20,000,000
48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20,000,000
49	자문위원	이종남	PT. SINYOUNG ABADI	20,000,000
50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20,000,000
51	자문위원	하재수	PT. ROYAL PUSPITA	20,000,000
52	이 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5,000,000
53	이 사	강대현	PT. INKOR MARINE SERVICE	15,000,000
54	이 사	강형구	PT. IBS INSURANCE BROKING SERVICE	15,000,000
55	이 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5,000,000
56	이 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5,000,000
57	이 사	김일태	PT.CPL (OROM CONSULTING)	15,000,000
58	이 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15,000,000
59	이 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5,000,000
60	이 사	박남형	PT. APLUS LOGISTIK	15,000,000
61	이 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5,000,000
62	이 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5,000,000
63	이 사	서광호	PT. KEUMKWANG SEMYU INDONESIA	15,000,000
64	이 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5,000,000
65	이 사	송진은	PT. KMK GROUP	15,000,000
66	이 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5,000,000
67	이 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5,000,000
68	이 사	양원석	PT. TAEWON INDONESIA	15,000,000
69	이 사	양호정	PT. KISWIRE INDONESIA	15,000,000
70	이 사	염정윤	PT. HANSAE INDONESIA UTAMA	15,000,000
71	이 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5,000,000
72	이 사	우태규	PT. BIMARUNA JAYA	15,000,000
73	이 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5,000,000
74	이 사	이근대	PT. DONGBANG	15,000,000
75	이 사	이병수	PT. MITRA DONGBU INDONESIA(KB INSURANCE INDONESIA)	15,000,000
76	이 사	이상현	PT. AIDA INTERNATIONAL	15,000,000
77	이 사	이서연	PT. SEYANG INDONESIA	15,000,000
78	이 사	이성훈	PT. KORINDO HEAVY INDUSTRY	15,000,000
79	이 사	원은재	PT. ACCESS MOBILE INDONESIA	15,000,000
80	이 사	장영관	PT. LAYCO	15,000,000
81	이 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5,000,000
82	이 사	최희정	PT. MULTI SOLUSI NUSANTARA	15,000,000
83	이 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5,000,000
84	이 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5,000,000
85	사무총장	임성필	PT. LSP INDONESIA	15,000,000

2026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입금순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조선희	500,000	17	이지선	500,000	32	이지선	500,000
2	최석일	500,000	18	김윤영	500,000	33	최승희	500,000
3	김담빛	500,000	19	박선이	500,000	34	김미정	500,000
4	오정민	500,000	20	배진철	500,000	35	배영근	500,000
5	박수연	500,000	21	배산목	500,000	36	홍바하	500,000
6	오인병	500,000	22	류정화	500,000	37	이지선	500,000
7	최인실	500,000	23	이지선	500,000	38	서더영	500,000
8	허소영	500,000	24	이지선	500,000	39	장호제	500,000
9	박정민	500,000	25	영돈준	500,000	40	기혜정	500,000
10	최지은	500,000	26	이지선	500,000	41	김슬기	500,000
11	김지윤	500,000	27	이현용	500,000	42	이지선	500,000
12	황유미	500,000	28	이송용	500,000	43	이영훈	500,000
13	김규리	500,000	29	이지선	500,000	44	김지우	500,000
14	김윤진	500,000	30	오세명	500,000	45	류지혜	500,000
15	이희경	500,000	31	김동윤	500,000	46	이지선	500,000
16	박재걸	500,000						

2026 안인외관 건립기금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부회장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000,000

2026 안인뉴스 기부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IDR)
1	고문	김준규	CIPTA ORION METAL	50,000,000

생활정보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JI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SIS)	7591	4414
(글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JIS)	750	3640
북국제학교(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AIS)	782	1141
일본학교(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유치원	835	1540
하나유치원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BSD)	537	0290
DAMAI INDAH(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	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	827 1212
RANCAMAYA	0251	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	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TK Golf Academy	0811	1377 720/81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woori consulting

2003년부터 이어온 전문성

수천 명의 고객과 수백 개 기업이 선택한 컨설팅사

기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정 절차
주재원 체류 행정, 더 쉽고 편리하게

woori consulting

우리컨설팅

비자·법인·인허가·수출입·부동산·채용

+62 8111-543-456 +62-21-7918-4239
hzkim2003 | wooricn2
master@woori-consulting.com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기타 기초반 수업
9월 개강

① 일시: 매주 일요일 4시
② 장소: ruko Hivocosmo no.6
③ 대상: 기타를 처음 시작하는 분

문의: 총감독 김현진 카톡 ID: Joy7983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치과 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짜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짜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라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당점	453	3624
무궁화 짜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담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부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쪼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짜부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Q MARKET(구 한일마트)	7212	0299
한일마트(땅그랑)	0813	1620 0225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달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짜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아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찜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Bornga)	739	6229
본가(족자카르타)	0274	2831440

본가(Wolter Monginsidi) 0811 1880 826
 본가(Blok M) 0811 9896 897
 본가(Kelapa Gading) 0812 1989 7004
 본가(Lippo Mall Puri) 0811 9312 868
 본가(Gading Serpong) 0813 8719 1373
 본가(Cikarang) 0813 8723 0639
 본가(PIK) 0858 8163 0122
 본가(Central Park) 0811 8000 3637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 (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복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꼴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식당(Saemaeul Sikdang)
 새마을식당(PIK) 0811 9000 1051
 새마을식당(SCBD) 0859 7257 4412
 새마을식당
 (Gading Serpong) 0852 1506 12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 4007 7256
 아랑진사갈비 0857 8263 7072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용대리(SCBD) 021 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2 1372 2793
 청해수산 527 8721
 치맥(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PIK) 0812 8881 1532
 흥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 69 4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아웃소싱·시설관리

신테크라(SYNTegra) 08001778889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내려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포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투어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로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오롬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Fenty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dailyindonesia.co.kr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TK Golf Academy

아마추어도 쉽게 이해하는 프로 레슨

KPGA, KLPGA PRO

- 제형별 맞춤형 레슨
- 불필요한 힘을 뺌, 효과적인 스윙
- 부상 없이 즐기는 골프

instagram @ta3_kyung +62 8111377720
@kckim0509 +62 8111377781

위치 Gading Mas Driving Range, Kelapa Gading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가람투어 & 컨설팅	021 5573 1236 0821 1010 3647

● HR·채용·헤드헌팅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또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시내) 021 300 250 4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서중일고(박광호) 0817 46 1111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중고(김태영).....0811 1092 690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류성운) 0855 1212 148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최재혁) 0811 87 0386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이동현) 0812 2336 6772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허정록) 081218645977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헌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트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한 준 석	0812-1006-0965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 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공 석)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국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권 양 회	08122-8000-654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부회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정 찬 식	0815-8414-1495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사무총장	우 원 필	0812-283-2238
11	발리한인회 [0822-1996-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7-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석 태 환	0822-8820-1223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0411-483-6713]	회장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